

Social Science Korea 연합 심포지엄

“한국사회과학의 신 경향”

주최  **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13:30~18:00
- 장소 :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 홀

본 심포지엄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SSK연구사업단 중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을 초청하여 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SSK 사업 성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 회 식 (13:30-14:00)

개회사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축 사 서태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제 1 발 표 (14:00-14:40)

사 회 신 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 표 류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인정과 사회통합”

토 론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제 2 발 표 (14:40-15:20)

사 회 신 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 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토 론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커피브레이크 (15:20-15:40)

제 3 발 표 (15:40-16:20)

사 회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발 표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국가 레짐과 국가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

토 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제 4 발 표 (16:20-17:00)

사 회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발 표 윤 택 (서울대 경제학부)

“정책 시그널의 모호성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공조”

토 론 정용승 (경희대 경제학과)

종합 토론 및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정기총회 (17:00-18:00)

만 찬 (18:10-)

Contents



- 류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7
“인정과 사회통합”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19
“남북한 마음의 통합: 접촉지대로서 대북인도적 지원의 경우”
-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45
“국가 레짐과 국가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
- 윤 택 (서울대 경제학부) 63
“정책 시그널의 모호성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공조”

제 1 발표

“인정과 사회통합”

류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SSK 사회통합 연구단

인정과 사회통합

단장 강원대 유승호

INDEX

1. 불평등 배경
2. 분배와 인정의 하이브리드
3. 불안
4. 고통
5. 행복
6. 사회통합

1장 : 불평등 배경

다중적 사회 불평등

PROBLEM

불평등의
중층화 ·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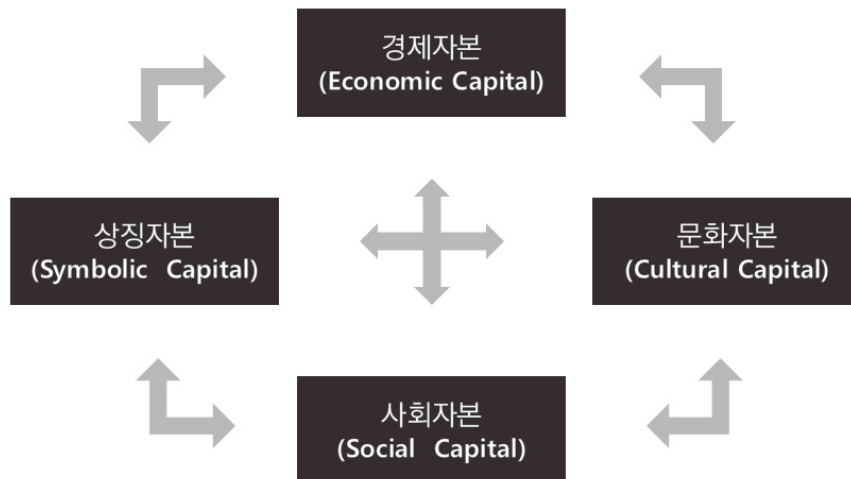
» 유연적/다원적 개방 체계 → 다원화 촉진 → 불평등의 복선화, 구조화, 양극화

» 고도 불안 사회 → 경계적/방어적/자구적 생활관 → 갈등의 원인이자 촉매

“다중격차(Multiple-Divide)시대의 도래”

1장 : 불평등 배경

자본 순환론 Convertibility



1장 : 불평등 배경

다중 격차의 차원

- 경제적 차원: 소득, 자산 등 가용 자원의 편중화
- 사회적 차원: 거주지, 자녀교육 격차로 확장
- 문화적 차원: 소비, 취향,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 질적 불평등
- 의식적 차원: 야망계급 vs 절망계급, 지위상승경로(사다리)의 비가시화로 열망 감퇴



범주 간 단절성(Disparity), 이질성(Heterogeneity), 항구성(Permanency) 강화
“사회 갈등의 지형 변화”

2장 : 분배와 인정의 하이브리드

인정, 분배, 보편적 복지의 상호교차

Case 1 : 미국

- 빈곤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사회적 낙인감, 수치심 유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무시 강화
- 계급 종속을 시정하는 “보편적 복지” 요구

Case 2 : 프랑스

- 빈곤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ex)쿠폰 발행
수치심과 차별과는 무관
- 개인의 권리 요구와 선택에 대한 인정

➤ 인정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하층으로 갈수록 인정구축의 가속화

- 인접 계급과의 구분짓기를 통한 자기 이미지 창출(Lamont, 2000)
-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무시 → 경비원의 택배기사 무시 → 택시기사의 배달원 무시

➤ 몰인정, 무시, 모멸이 발생하는 권력 관계는 무엇인가?

- 권력의 조건: 불안에 대응한 계층들간의 선택 비대칭성(기대효용, 가용성의 부재)

인정과 분배, 그리고 개인

한국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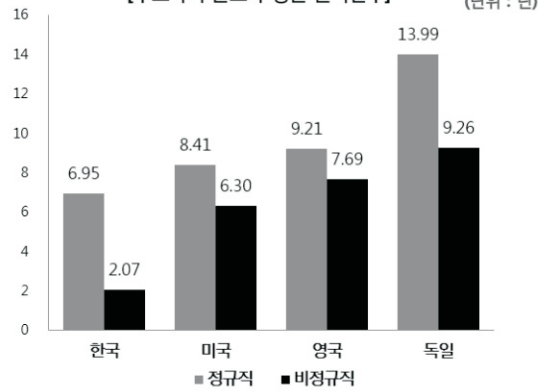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의 차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탈속련화"
- 2014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254만원, 비정규직 142만원으로 격차는 점차 심화 추세

[주요국의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

국가	시간제	기간제
한국	7.4%	17.7%
미국	13.0%	4.0%
독일	17.6%	12.7%
프랑스	13.8%	14.9%
일본	24.9%	12.8%
네덜란드	33.0%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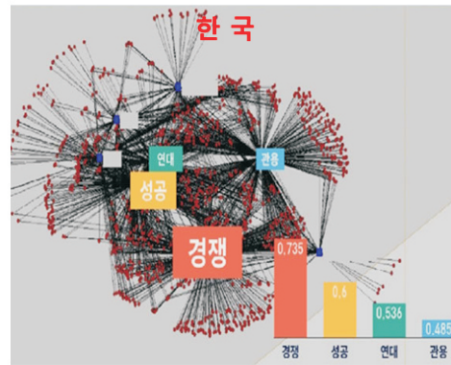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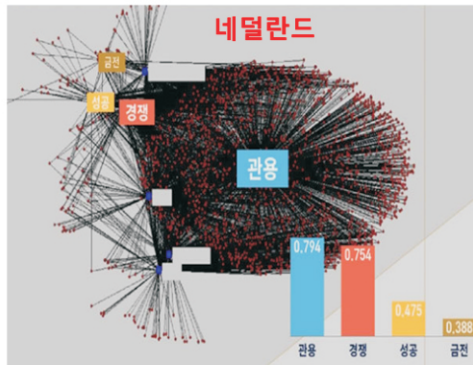
*출처 : OECD, 2003~2006

[주요국의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출처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미국 「현재인구조사(CPS)」, 2010; 영국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2010; 독일 「사회경제패널조사(SOEP)」, 2010

각국의 관용 수준 : 안티프래질(Antifrag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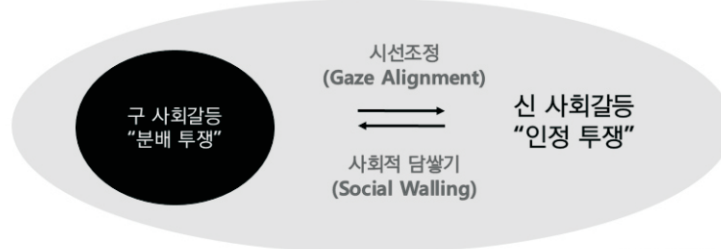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의 가치 인식 구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네덜란드	관용(0.794)	경쟁(0.754)	성공(0.475)	금전(0.388)
독일	경쟁(0.734)	평등(0.697)	연대(0.662)	관용(0.693)
미국	경쟁(0.759)	평등(0.669)	연대(0.655)	관용(0.499)
일본	경쟁(0.716)	관용(0.608)	평등(0.531)	이타주의(0.492)
한국	경쟁(0.735)	성공(0.600)	연대(0.536)	관용(0.485)

*출처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미래한국리포트, 2014

불안의 계층화

고불안 시대의 사회갈등은 “분배투쟁”에서 “인정투쟁”으로 확장



상층 : 자녀 세대로의 지위 연속성에 대한 불안(계급 재생산)

- 문화자본의 경제자본화 : 의사, 판검사
- 사회자본의 전승 : 정치인
- 중하계층 계급 상승 경로의 차단

하층 :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

- 선택의 부재 : 무시와 모욕에 대한 대안적 선택의 부재
- 시간 기근(time famine), 높은 사회적 고립도

[타 집단에 대한 거리감]

국가	사회적 거리감
한국	5.05
미국	2.33
독일	2.45
일본	1.33
네덜란드	2.39
전체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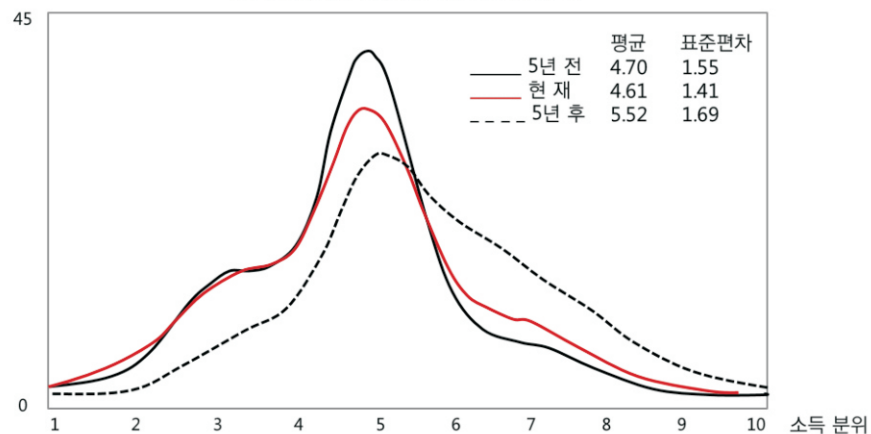
*출처 : WVS, 2010~2014

가구생활 긍정 전망과 계층 변화

- 상층 : 긍정 전망 → 소득, 지위 상승에 영향
- 하층 : 긍정 전망 → 소득, 지위 상승에 영향 없음

“Goal-Means” 간의 격차

[가족의 상대적 계층지위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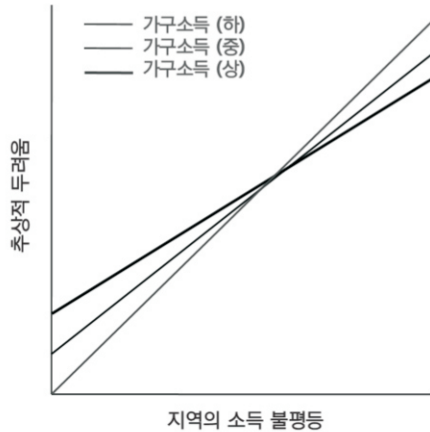


*출처 : 이왕원 · 김문조, SSK 내부 세미나(2014), 한국복지패널(2011); 이재열(2014)

3장 : 불안

중층적 불안 : 범죄의 두려움으로 전이

[두려움에 대한 가구소득과 지역 소득불평등의 상호작용]



*출처 : 장안식 · 김문조, SSK 내부 세미나(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추상적 두려움	하층동질 b 값 (s.e)	하층이질 b 값 (s.e)	상층이질 b 값 (s.e)	상층동질 b 값 (s.e)
(상수)	3.97*** (0.71)	3.06*** (0.60)	7.51*** (0.75)	7.12*** (1.52)
여성	2.59*** (0.14)	2.95*** (0.12)	2.83*** (0.14)	3.36*** (0.28)
연령	-0.02** (0.00)	-0.01*** (0.00)	-0.01** (0.00)	-0.02* (0.01)
교육	0.11 (0.08)	0.05 (0.07)	-0.06 (0.08)	-0.02 (0.18)
가구수입	0.08 (0.07)	0.27*** (0.05)	-0.01 (0.07)	-0.07 (0.14)
피해경험	1.14*** (0.26)	0.42 (0.22)	0.91*** (0.25)	0.35 (0.62)
사회적 무질서	0.14*** (0.04)	0.27*** (0.03)	0.10* (0.04)	-0.07 (0.08)
물리적 무질서	0.18*** (0.03)	0.11*** (0.03)	0.04 (0.04)	0.08 (0.08)
지역유대	-0.02 (0.02)	0.01 (0.02)	0.00 (0.02)	0.09 (0.05)
비공식통제	0.00 (0.02)	0.02 (0.02)	-0.10*** (0.03)	0.05 (0.06)
공식통제	0.02 (0.02)	-0.02 (0.02)	0.05 (0.03)	-0.10 (0.07)
	0.249	0.295	0.249	0.32
사례수	1,814	2,356	1,455	371

4장 : 교통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참'

>> 교통의 시공간적 확산

• 시간 궤적 : 미래 전망

• 공간 분포 : 비교, 근접, 지역

>> 의식의 잠식

[고도 성장기 : 1960~1997]



[성장 지체기 : 98년 이후]



직접고통과 간접고통의 유형

>> 직접고통 유형

Group 1 : 나이 많은 내국인 (육체,비상근근로자, 가족 단위 농경인)

Group 2 : 나이 많은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노동이주민)

Group 3 : 젊은 내국인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Group 4 : 젊은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 간접고통 유형

Group 5 : 소규모상점 소유인이나 거주환경이 열악한 도시 주거지역의 주택관리인 등 직접고통의 표출형태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Group 6 : 노조 행동대원이나 여성의 집 설립인 등 직접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명예직 이익 대변인

Group 7 :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 경찰 등 직접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전통 공무원

분류되지 않은 많은 유형들

01 비혼자

02 흡연자

03 알콜중독자

04 홈리스

05 게이머

06 비만인

07 키 작은 남자

08 못 생긴 여자

09 트랜스젠더

10 장애인

11 취향소수자(오타쿠)

12 새터민

13 매춘부

14 이주노동자, 난민

15 빈곤 노인, 독거 노인

16 취업포기자

17 수능포기자

18 열등생(학업성적부진학생)

19 실직자

20 지방사립대학생

21 지역균형선발학생

22 영세자영업자

23 위험직 (폭발물관리인, 산악방재인 등)

24 소규모 장인, 수공업자

25 기피 직종 (유품정리사 등)

26 아르바이트(편의점 알바, 문상객 알바 등)

27 연극인, 영화스텝, 엑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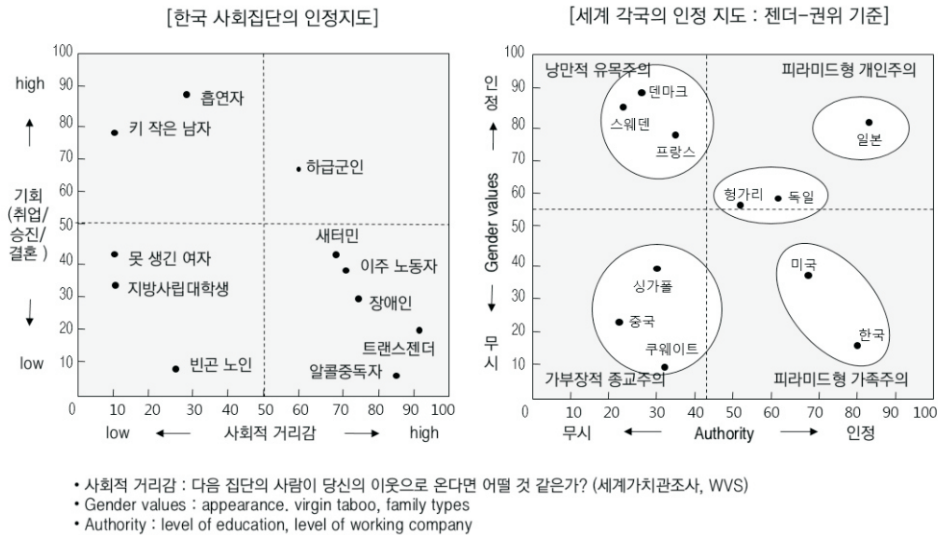
28 전업 시간강사, 전업 작가

29 하급군인

30 출장 도우미 (가사, 육아, 교육 도우미 등)

5장 : 고통

인정 지도(Recognition Map) : (예시)



4장 : 고통

고통의 크기도 측정이 가능할까? : 고통의 경제

GDP에의 새로운 대안 : 기존 삶의 질 지수 등은 행복감정 초점, 고통은 행복과 상쇄불가능

Situation A



Situation B



경제적 영향 평가 :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환경영향평가 : 대기, 수질, 토양, 자연, 생활환경 등에의 영향
 문화영향평가 :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안전, 불안, 배제, 신뢰, 사회적 유대애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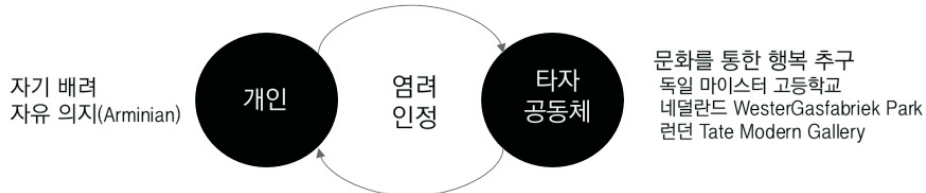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 비시장재의 가치추정 방법

- A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1㎡ 씩 땅을 산다고 할 때, 당신은 1㎡에 최대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5년 동안 연 10만원씩 세금을 더 낸다면 동의하겠는가?
- Damage Cost due to AB - Benefit by Countermeasure for AB

5장 : 행복

행복의 경제학 : 유데모니아의 지향

» 유데모니아(Eudaimonia) : 개인들이 부끄러움 없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



• 현재 문화영향평가(문화기본법 2014. 3. 31 시행)

1단계 : 문화 인프라, 문화 프로그램, 문화서비스, 문화격차, 고유한 문화생태 특성 평가

2단계 : 문화 인프라, 서비스, 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화역량 여부 평가

고통에 대한 실증 작업 = 행복에 대한 적극적 추구 = Danish Effect(Diner, 2009)

6장 : 사회통합

선택의 확장 - 안정 유연성 모델

» 양질의 기회에 대한 선택의 확장 : 인정 구축 효과의 해소



6장 : 사회 통합

분배를 넘어 인정으로 : self-respect by recognition



A man of talent will strive for money and reputation; but the spring that moves genius to the production of its works is not as easy to name.

(Arthur Schopenhauer)

izquotes.com

감사합니다.

제 2 발표

“남북한 마음의 통합:
접촉지대로서 대북인도적 지원의 경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 마음의 통합

- 접촉지대로서 대북인도적 지원의 경우-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1. 남북관계의 중층성

분단 이래 남북한은 ‘동족상잔’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전쟁이 상징되듯이 끊임없이 적대적 갈등을 겪어 왔다. 서해상의 수차례에 걸친 충돌과 같은 소규모의 무력충돌을 포함하여 인명이 살상되는 갈등도 지속되었고,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경쟁에서부터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의 긴장관계는 오늘날까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등이 남북관계의 키워드였지만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대표하듯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때는 전쟁과 다름없이 진행되었던 남북간 운동경기도 이루어졌지만, 단일팀을 이루어 세계를 제패한 경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아웅산테러’로 최고지도자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는 전쟁이후 최초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남북관계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과 화해가 번주되는 남북관계가 분단사의 주요 특징인 것은 분명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적대적 관계를 넘어 평화공존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 일종의 당위적 명제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시각 자체가 남북관계를 체제간의 관계로 그리고 그 관계마저도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¹⁾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남북한은 두체제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여왔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포함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건, 협력사업을 하면서 화해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혹은 외양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자체가 없었던 간에 양 체제간의 상호작용은 항상 지속되어왔기에 적대적 혹은 협력적이라고 단절적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남북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각각의 체제가 분단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²⁾ 체제와 아울러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지속적으로 분단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업생활이나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

1) 남북관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관계 즉, 국가간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적대관계(공정)와 협력관계(부정)의 단순한 범주로 나누어 버린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특정 시점이나 기간만에 관계의 고려 대상이 된다.

2)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경우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다.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참조.

주의와 민족주의가 과잉인 사회의식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남북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상호작용의 변화는 사회구조적 특성이나 사회구성원의 성격과 연결되어 변화를 유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은 사회구조에서 일상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호작용의 주체가 다차원적인 동시에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과 북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호타협하거나 혹은 긴장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상호작용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타협과 충돌이 동시 일어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거시적 차원이나 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달리 대단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북한 체제를 독자적으로 분석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³⁾ 남북한 사회통합과 같이 상호작용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제에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한다면 남북의 사회통합을 고민한다면 먼저 남북의 상호작용이 구조의 차원에서 일상의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제도의 통합과 달리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들의 일상이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남북한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접촉지대(contact zone)’를 상징하고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마음의 체계’의 통합이다.

2.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라는 고전적 사회통합 논의를 ‘미시적 수준’에서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인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Giddens 1982, 92-93),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사회통합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이다.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방향성을 둘러싸고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Mayhew 1982, 12-13; 20). 첫째,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기화·권리의 평등성 확대와 소통의 확대에 기초한 연대성의 확장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다. 둘째, 통합을 통제에 기초한 획일성의 증가로 보는 부정적 입장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된

3) 예를 들어서 남한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체제는 물론이고 연구 대상 시점의 남북관계의 영향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패턴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 논의에 탈근대성(post-modernity)를 도입할 경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통합을 바라볼 수도 있다.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만남은, 예를 들어 사고방식에서 남한사람의 업적주의·개인주의·다원주의와 북한사람의 평등주의·집단주의·일원주의의 충돌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우월감이나 승자의 관용과 같은 정서가 북한사람의 동경심이나 자존심과 만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결과윤리와 동기윤리의 대립-과 규범, 남북한 관계의 미래에 대한 가치판단도 충돌할 수 있다. ‘민족’을 둘러싸고도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체계의 만남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산출할 수 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position)에 따라 서로 다른 마음의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적’ 또는 ‘혜게모니적’ 마음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남한 사람 및 북한사람 내부에도 서로 다른 마음의 체계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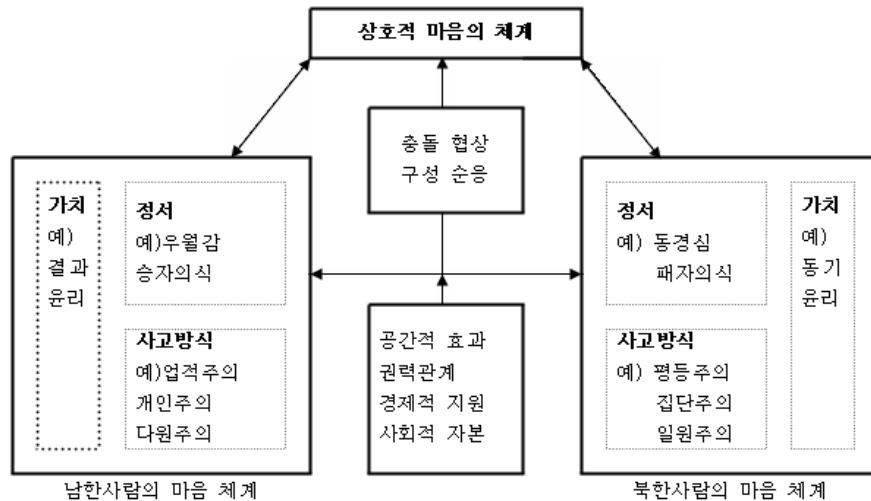
접촉지대에서 만나는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체계는 분석적으로 ‘세 층위’를 가진다. 첫째 층위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체계다. 둘째 층위는 접촉지대로 진입하기 전 서로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체계로 첫째 층위와 밀접히 관련된다. 셋째 층위는 접촉지대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체계다. 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첫째, 접촉지대의 공간적 효과-접촉기간, 접촉목적, 접촉형태, 접촉빈도 등-과 둘째, 접촉지대 내부에서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들 수 있다. 개성의 자본-노동관계, 탈북자 거주지역에서의 원주민-이주민 관계 등이 두 번째의 예가 된다. 셋째, 접촉지대 내부에서 각 행위자들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의 분포 등도 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 접촉지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의 비대칭적 효과로 ‘갈등’을 내면화하며 따라서 갈등 ‘조정’의 장-마음의 체계의 재구성의 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마음의 체계들이 경쟁하면서 상호적 마음의 체계가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접촉지대의 마음체계의 미시적 통합에서 규범적 지향을 선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마음의 체계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호적 마음의 체계’를 ‘두텁게’ 실증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식담론이 은폐하거나 구조적 설명이 간과하는 행위자들의 ‘일상’을 복원함으로써 공식담론이나 구조적 설명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이다.⁴⁾ 그 과정에서 마음체계의 ‘충돌’과 ‘순응’이라는 이분법뿐만 아니라 마음체계 사이의 ‘협상’이나 서로의 마음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상호적 마음체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태가 뚜렷한 경계를 가진 분절화된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경제적 접촉지대에서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의 업적주의를 협상을 통해

4) “일상 속에는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일상은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 영역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적 또는 사적이라는 구분으로 일상을 정의할 수 없다”박순성·홍민,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 2010)180 쪽.

수용하지만, 자신들의 집단주의나 일원주의를 거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호적 마음의 체계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형태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지배적 형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합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작성한, 상호적 마음의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



3.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분단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반복해왔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극단적인 대결상태를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지속되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져왔다. 7·4공동성명, 6·15 및 10·4 공동선언을 포함한 최고위급의 정치적인 협상도 있었고, 기본합의서로 대변되는 다양한 수준의 남북 간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촉은 주로 남북 당국 간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것으로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연결되었고, 점진적이지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교류 차원까지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 활성화된 대북지원 활동이다.⁵⁾

대북지원 활동이 활성화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다.⁶⁾ 아사자만 100여 만 명이라

5) 여기서 대북지원 활동이라 함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온 북한에 대한 식량, 의약품 제공과 보건·교육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의미한다.

6) 고난의 행군은 고난의 행군’ 시기는 좁게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일인 1994년 하반기부터 1997년까지를 말하나, 넓게는 북한의 체제 위기 기간인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를 의미한다.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 8권 1호(2005), 9~11쪽. 고난의 행군과 관련된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이상림,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2013), 29~60쪽 참조.

고 추산되는 북한상황을 접하면서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 지원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북한주민을 도와야한다는 보편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전된 남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87년 체제의 또 다른 측면 즉, 성장한 시민사회의 존재도 대북 지원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의 중심이었던 시민사회 세력들은 19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으로 방향을 정한 조직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종교단체 등과 연대하면서 대북지원활동의 주축이 되었다.

초기에 긴급 구호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시작되었던 대북지원 활동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을 기저로 바뀌면서 양과 질에서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대북지원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하였던 이명박 정부 이후 이들의 활동이 주춤해졌다고는 하나 15년이 넘는 동안 이루어진 남한 시민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은 기존의 남북관계가 국가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와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북한의 식량 및 보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여부와 같은 지원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 사회 갈등 문제 등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남북관계와 사회문화교류의 사례로서 그리고 대북정책의 차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의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공간이 된다는 점이다. 대북지원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남북한 실무자들의 협상 공간은 물론이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지원현장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접촉은 과거에는 가져 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글은 대북 인도적 지원 현장을 남북한 주민의 마음이 만나는 ‘접촉공간’으로 상정하고 여기서 남북한의 마음들이 어떻게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⁸⁾

먼저 대북인도적 지원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접촉공간으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갖는 성격을 검토한 이후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문제를 분석하는 순서로 이 글을 구성할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지원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후

7) 인도적 지원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는 김정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2010), 211-218쪽 참조.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사회적 효과,” 『동향과 전망』, 70호(2007), 243-272쪽;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8) 접촉시대와 마음의 통합에 대해서는 양문수·윤철기,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참조.

원자로서 북한을 방문하였던 일반 시민들의 참여기 등의 문건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주요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들도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표 1 대북지원 관련 면접 대상자 목록

성 명	소속/직위	인터뷰 날짜
L1	국제인도단체한국지부/부장	2014. 3. 20
Y1	국내·대북지원단체/실장	2014. 3. 6
P1	통일관련단체/국장	2014. 3. 12
L2	통일관련단체/처장	2014. 3. 13
S1	대북지원단체 /부장	2014. 3. 17
K1	대북지원단체 /처장	2014. 3. 5
H1	대북지원 단체 /국장	2014. 3. 28
U1	대북지원 단체/총장	2014. 3. 19

15년이 넘는 동안 대북지원활동이 지속되었고, 이 결과 많은 관련 단체들이 생겼지만, 중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 어깨동무」, 「월드비전」 그리고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이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대북지원활동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민족화해중앙협의회」, 「한반도 평화포럼」 관계자의 증언도 참조하였다. 각각의 단체가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체계(mind system)가 만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이다. 이러한 형태의 접촉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닌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4. 접촉지대로서 대북인도적 지원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라는 고전적 사회통합 논의를 ‘미시적 수준’에서 고찰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인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Giddens 1982, 92-93),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사회통합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이다.⁹⁾

남북한의 접촉지대는, ‘장소’(place)로서의 ‘지리적 공간’과 ‘공간의 제도화’ 존재유무라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변수인 장소는, 남북한의 ‘경계’ 그리고 경계에 의해 공간이 획정되는 ‘영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영토는, 또한 남북한 각각의 영토 내부 그리고 해외의 장소를 상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남북의 접촉지대는, ‘고안된 제약’인 ‘게임의 규칙’의 존재여부(North 1996, 13), 즉 ‘제도화/비제도화’의 기준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¹⁰⁾

<표 1> 남북한의 접촉지대

장소 \ 제도		제도화	비제도화
경계		(1) 남북협상	(2) 북방한계선(NLL)
영토	남한	(3) 탈북자 거주지역	(4) 비공식 부문 탈북자
	북한	(5)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6)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해외	(7) 유엔, 6자회담	(8) 탈북자의 해외 거주지역

위의 분류에 따르면 대북지원은 장소로서는 북한 영토 안이고, 접촉의 제도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비제도화’된 접촉공간이다. 대북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원의 주체와 대상이 비교적 일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원사업은 불규칙적이고, 남한이 북한 그리고 상호간의 일정하게 구축된 제도적 틀이 없다는 차원에서 비제도화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촉지대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이 갖는 성격을 우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¹¹⁾

첫째, 분단이후 남북관계는 주로 정부가 중심이 되었고, 일부 사회문화교류에서 민간단체가 개입하였던 적이 있으나 대북지원은 명실상부하게 민간이 중심이 되는 남북간 접촉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단이후 남북관계에서 시민사회가 전면에서 나서는 첫 번째 계기가 대북지원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²⁾

9) 위의 글, pp.254-255.

10) 위의 글, pp. 258.

11) 대북인도적 지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17~24쪽 참조.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관련단체인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과 어린이 어깨동무의 활동 역사를 참고할 수 있다. <http://ksm.or.kr/index.html>; http://www.okfriend.org/about_us?tab=tab_our_way 2014.6.1. 검색.

12) 대북지원과 정부 민간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경연,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

둘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었다고는 하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접촉과정이나 물자 반출 등에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던 까닭에 대북지원 활동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¹³⁾ 더욱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결합뿐 아니라 의약품 등의 물자지원에 관련기업들도 참여함으로써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민사회-기업의 결합이라는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¹⁴⁾

셋째, 총리급 회담과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지속적인 남북간 접촉을 경험하였지만, 대부분의 남북접촉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접촉의 형태와 범위도 점차 확산되는 경향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지원의 내용도 단순한 긴급구호에서 점차 개발지원적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넷째, 민주화과정에서 통일운동을 지향했던 단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권위주의 정부의 타도에 있었다. 반면 대북지원이 주축이 되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면서 실질적인 통일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념적인 차원보다는 북한주민의 상황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일과정의 하나로 간주하고 실천적인 차원의 초점을 맞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운동 조직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이념적인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범위가 넓었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의 경우는 7대 종단이 주축이 되었고, 보수적인 대북관을 견지해왔던 개신교 기반의 대북지원단체들도 확산되어갔다.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어린이 어깨동무」 등도 이념기반의 사회운동단체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북지원의 특성은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 단체들의 활동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나타나는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 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대북지원 활동으로 다층적인 남북접촉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접촉뿐만 아니라 보건지원을 통한 의료인들의 접촉, 병원 등의 구호시설 건축을 위한 건설전문인들의 접촉, 인도적 지원을 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방북을 통한 보통 사람들의 접촉 등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남북 접촉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둘째, 대북지원의 주체가 되었던 NGO의 실무 중심자들은 과거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집단이지만 대북지원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 이해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접촉

할.” 『KDI 북한경제리뷰』, 14권 9호(2012), 43~45쪽 참조.

13)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298쪽.

14)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국신, 『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근식, 『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15) 이우영,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쟁점 및 개선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13권 7호(2011), 81쪽.

지대의 질적 차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셋째, 사업의 진행과 확산과정에서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접촉을 유지하였던 남북의 사람들의 접촉면도 심화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업무 중심의 대화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개인사까지 나누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념이나 가치관 그리고 정서의 부분 등 마음체계 전반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호이해가 증진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체계를 수용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충돌하고 재규정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넷째, 대북지원 긴급구호에서 병원건설, 농업지원, 농기계 제작, 교육지원 등 점진적으로 발전하였고, 과거에 비해서 접촉양식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법적인 안정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화는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지원단체 별로 혹은 지원사업별로 남북 간 접촉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제도의 틀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대북지원단체들간의 조직(북민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정부와의 연결도 이루어졌지만 불안정한 수준이었다.

다섯째, 대북지원의 공간은 북한영토가 중심이었다. 협상을 위한 공간으로 중국 등 제3국이 활용되기는 하였지만 개성공단 개설 이후에는 개성을 주된 협상장소로 활용하였고, 실질적인 접촉의 공간은 북한영토였다. 그리고 사업의 진전과정에서 신의주나 남포 그리고 개성이나 해주 등 지방이 접촉공간이 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평양이 중심이 되었고, 평양인근지역이 해당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접촉공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비제도화된 접촉공간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여섯째, 남북 간의 접촉이라는 차원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자체가 문물을 공여하는 입장과 원조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계의 불균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갑’의 입장이며 북한사람들은 ‘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접촉지대의 만남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일곱째, 접촉의 주체가 다양하면서 불균형적이라는 점이다. 남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관련 단체의 활동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전문가들이 접촉이 주체가 된다. 북한의 경우 대남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중심이면서 부분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방북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제한 등으로 접촉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한된다. 반면 북한 쪽 대남사업 종사자나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일반 주민들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접촉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5. 대북지원에서 마음체계의 상호작용

개별 단체와 추진 사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지원 활동은 다음의 몇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¹⁶⁾ 첫째, 남한의 지원단체가 대북지원을 결심하고,

16)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51~61쪽 참조. 이와 더불어 면접대상자, S1, L2, H1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통일부에 승인을 얻은 이후 북한의 관련 기관과 접촉을 한다.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남 관련 실무자들과 남한의 지원단체 실무자간에 사업 추진과 관련 의견을 조율한다. 넷째, 남한의 지원단체 실무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자와 더불어 사업 현장에서 북한의 관련 사업 전문가들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남한의 관련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지원 활동을 후원하는 남한의 일반 주민들의 북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접촉하는 경우가 부정기적으로 존재한다.

공여자와 수혜자는 권력관계가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근본 배경이 되지만, 대북지원 활동의 접촉공간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원의 필요성에 상관없이 북한 특히 대남사업 종사자 보다는 정치사업 종사자는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한 단체 관계자들 대북지원 활동 자체에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대외 원조 자체를 자존심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공여자-수혜자 관계의 상호작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통합 관련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소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가. 부정요인; 갈등 초래

1) 선입견과 경쟁의식

대북지원 현장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다른 접촉지대의 상호작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이후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⁷⁾ 이와 더불어 상호작용에서 마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애들하고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북한을 들어 갈 때 긴장되고, 북한 애들 만날 때 답답하고, 그건 병처럼 갖고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말 한마디 하는거, 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의도가 뭘까? 맨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게 습관화 되어 있는거예요. 재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럼 난 뭐라고 받아 쳐 줘야 되지? 내가 얻고자 하는건 뭘지? 음?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거야? 자기, 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열하고, 검증하고, 이러다 보니 북한 애들이랑 이야기 하는게 막 편하지만은 않아요. L1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계산하고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17) 냉전적인 교육과 미디어에서 비롯된 적대의식이 여기에 포함한다.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140쪽.

있지만 북한은 순수하지 않다는 선입견이 자기검열로 이어진다. 분단이후 지속된 남북한 간 갈등과 반복되어온 반공교육은 접촉공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수준의 남북한 간 적대적 대결관계는 개인 수준에서의 경쟁의식으로 발현되는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는 마찬가지이다.

서로서로에 대한 어떤 경쟁 라이벌 의식 같은 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친구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선뜻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야, 이팀장, 왜? 나 있잖아. 너한테 지구 싶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내가 애를 이겨야지 하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얘기하면 받아 치구 받아 치구, 내가 얘기하면 그 친구가 받아 치구 받아 치구, 뭐 이런 것들이 그 친구는 언제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구요. ... L1

인도적 지원이라는 사업이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접촉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작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불신은 사업을 일정기간 지속하면서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뢰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불신이나 선입견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완전한 신뢰감 형성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북쪽 담당자가 남쪽 실무자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산삼을 건네주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발생한 사례이다.

박스하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삼 한 뿌리가 켜지 얼마 안된 삼 한 뿌리가 잎사귀까지 싱싱한 삼 한 뿌리가 딱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너무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살짝살짝, 녹화되나, 녹음되나, 누가 주변에 없나... 북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은 의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거예요..... 애가 그걸 원 하는거야? 도대체 뭐지? 그러고선 와서 침대 앞에 놓고서는 한참을 고민해요. 이걸 돌려줘야 되나? 의도가 뭘까? 내가 이걸 먹은 다음에 뭘 요구할까?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순수해보이지 않기 시작하는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마라. 그 순간에 제가 되게 창피했어요. 그 친구는 진심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의 진심을 받아 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L1

2) 통제 및 감시의 문제

인도적 지원의 현장에서도 협상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

적 감시와 통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의 경우는 남북관계 전반을 정치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 현장에도 통상적인 정치적인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남한의 경우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의 압력이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난 너를 믿으려고 노력할거다. 근데 나는 너를 믿지만 내가 너를 믿는 거에 비해서 나의 후원자들과 우리 기관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 내가 우리 기관과 우리 후원자들한테 너를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L1

통제와 감시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뢰가 축적되고 일정 기간이 흘러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 쪽의 감시의 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¹⁸⁾

여러 가지로, 그 이후는 그 친구가 저한테 살짝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가 남쪽 사람이냐? 네가 xx에 뭐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L1

감시자의 유무와는 조금 다르지만 접촉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점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남한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솔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009년에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북한 의사들 교육을 병원에서 한 적이 있던 시기에 무뚝뚝하고 경계를 하던 북한분이 있었는데 한달 정도 연수를 마치고 평양에서 만났을 때 사람이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거죠. 그런데 남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거죠. 원래 임무가 있고 마음을 열기 싫었던 거죠. 근데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바뀐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사실 건축 과정 등 그런 일 하면서 사실 많이 친해져요. 많이 친해지게 되면 평소에 몇 십 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 안하다가도 제3국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K1

감시와 통제의 문제는 접촉하는 사람들의 구성과도 관련된다. 지원사업의 과정에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지원사업에도 정치사업을 하는 사람과 남북관계를 주로 하는 사람과 사업의 실무자들로 참여자가 구성되는데, 특히 내부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남

18) 북한의 사업관련 실무자의 교체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 참가한 면접자들도(P2, K2, H1, L2)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북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감시나 통제를 실무자들은 의식하게 된다. 체제경쟁의식과 결하여 북한이 뒤떨어진 분야를 인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능력이나 기술 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책이랑 똑 같이 얘기하구. 그게 자기네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책을 보고서 다 외우기 때문에 그게 당장 자기네가 실현되구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자존심엔, 자존심과 뭐 이런 게 부딪히면 와, 아닌거예요. L1

대북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북한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민화협이나 민경련과 같은 남북관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반복적인 만남을 통하여 신뢰도 생기고 상호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접촉 빈도가 적은 현장 실무자와의 관계는 어렵다.¹⁹⁾

3) 상대에 대한 지식부족과 가치 및 언어의 차이

대북지원의 접촉과정에서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도 오해 및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초기의 대북지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개념이 없는 북한 사람들이 민간 그리고 비정치적 접촉자체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건데, 북한은 이렇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뭐인지를 몰랐던 거지요. 북한은 우선 민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지요. 남쪽이라는 게 정치적 차원세계가 관리하고 만나고 그렇게 공작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가 남쪽을 혁명역량을 강화해서 어쨌든 남쪽을 적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걸 출발했었는데 대남 사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정식으로 북한을 접촉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어떤 정치적 차원이지요.... “당신 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H1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남북한의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특정 사업관련 지식의 차이가 마음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북지원 사업 특히 개발협력적인 차원의 사업에서는 기술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적인 차원의 지식차이가 문제가 된다.

19) U1 증언.

한의 제약공장 담당자하고 만났을 때도 뭐 묻고 뭐 묻고 하면 그에 대해 답을 못 하지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북쪽은 우리의 60년대 70년대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뭐 거의 2000년대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통하지 않지요. 그니까 이제 그 서로간의 어떤 그 제약 공장이라는 게 있으면 이 제약 공장의 수준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협의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지요. S1

기술적인 차이와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시하는 남북한 참가자들의 가치관의 차이도 장애요인이 되는데 남쪽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반면, 북쪽의 담당자들은 과시적인 사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된다.

북쪽에서는 우선적으로 크고 멋들어진 거면 돼, 이라는 게 기본 적 이구요, 제일 최신식의 설비에 최신식의 기계 인거지요. 그러면은 그거 하기 위해서는 북에서는 우선 “그 설비가 들어가면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계가 들어는, 제약공장 같은 경우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전가가 있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H1

대북지원의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남북 가치관의 갈등은 여성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 단체에는 여성 실무자들이 다수이나 북한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고 여성에 활동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있는 반면 남쪽의 여성들은 반발하게 되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진다.²⁰⁾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구, 그래서 처음에는 면담장에 들어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판, 그 신뢰가 쌓이면서 제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올 수 있는 것까지 남북양쪽 시민단체나 북이 참석했어도 결정권을 줬었고, 그렇게 진행을 됐었죠... 근데 저를 두고 내기를 건 거예요. “저 여성동무가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할 지 지켜보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3,4년 뒤에 얘기를 하더라구요. Y1

밥 먹고 또 한 시간을 싸웠어요. 근데 그 뭐 갖고 싸웠냐면, 어떤 거냐면 그 60차례 이상 방북을 한 사람도, 저도 그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남잔데, 나이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또 가부장적인 식으로 또 보이죠. Y1

상호간의 지식 부족이나 가치관의 차이와는 별도로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각각의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소통과정에서 복잡함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20) 2014년 6월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우 전업 실무자 8명 가운데 여성이 3명, 「월드비전」은 3명 가운데 1명, 「어린이어깨동무」는 6명 중 5명,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3명 전원, 「평화3000」은 4명 중 3명,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7명 중 6명이 여성이다.

우리식의 표현을 그쪽 식의 표현으로, 그쪽 식의 표현을 우리 식의 표현으로 바꾸는데 둘이서 협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명분을 좀 달라. 내가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 남쪽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북쪽 식으로 얘기해 줘. L1

4) 대북지원의 특수성: '갑을관계'와 남한단체 간 경쟁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은 지원의 주체로서 남한 그리고 피공여자로서 북한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갑을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존재한다. 제공한 물건의 품질을 둘러싼 논란의 경우인데 남쪽 실무자와 북쪽 담당자의 갈등이 생겼을 때 오간 대화 내용이다

자기가 봤는데 뭐 뜨겁지도 않고 뭐 어찌고저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하자. 날 넣어 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을 안 믿구, 이렇게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Y1

재네는 제거 아니라고, 이거 대충 나른다. 이런 불순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그게 암묵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재네 잘 살아서 잘 난척한다 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쓰던 거를 끼워놓고 오거든요. 연탄에다가, 탄에다가, 뭐 신발도 끼워 놓고 오구 양말도 끼워 놓고 그러고... Y1

남북한 간 상호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공자로서 남쪽 실무자는 일종의 권리의식을 갖고 있고, 북쪽 사람들은 남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남측은 이 연탄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연탄공장에 가서 사도 돼. 우린 후원금을 받는 거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죽어라 열심히 하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소중히 써야 돼서 이렇게 할 수 도 있어. Y1

제공한 연탄의 문제 원인이 조사 결과 남쪽 제조사의 책임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상호불신과 절차의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 된다.

물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남한은 '갑'의 입장이고 제공을 받은 북한은 '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 간의 대북 지원은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단일한 주체인 반면 '갑'은 주체가 다수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북지원일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대로 '을'의 권한이 확대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감자, 감자,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 내가 감자 사령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니깐 민간단체들이 다 감자하겠다고 또 나섭니다. 남쪽의 민간단체들이, 그러면서 이제 과일경쟁이니 뭐니 막 또 여러 가지 남쪽에서의 어려움을 또 겪게 되죠. 북측 애들은 그걸 적절히 이용하구요. U1

5) 남북관계의 변화와 상황인식의 차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문화교류도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특히 정부 간 정치적 관계에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북관계가 전체적으로 좋다면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대북지원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방북한 지원단체 담당자의 증언이다.

그냥 밥만 먹고 바로 나가자고 하니깐 나갈 수 없다고 싸운 거죠. 세관 앞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북쪽에서 그런 거죠.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너희 단체들이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딴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냐 이려고. 그러니까 개네들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뭐지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남한 정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민간단체에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남과 북 정부 모두의 입장이니깐. 하여튼 사진하나 찍는 것 하나도 다 검사하고 찍지 말라하고 실갱이하고. 더 예민했었죠. 그래서 더 어렵다 느꼈죠. U1

남북한 간 정세 자체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관련된 상황인식 특히 상대방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논의의 진전을 가로 막는 경우도 있다.

북쪽은 잘 진짜 몰라요. 그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거의 한 3년 4년 뭔가 안 된다는 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거는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 그런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U1

나. 긍정 요인

1) 시간과 경험 축적

남한의 지원사업 관련자들이 방북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3박4일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반복하면서 문제가 해소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경우 접촉시간의 제한은 부정적인 요인이 되어 접촉당사자간의 관계형성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지식이 증진되고, 문화에 대한 이

해도 깊어지면서 참여자들의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제가 변한 거는 맨 처음에 <나 너 못 믿어.> 근데 <지금은 나 너 믿을 수 있어>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건 저의 변화예요....그 친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뢰인거예요. 북한 체제를 믿진 않아요. L1

나름대로 김밥도 싸구요. 닭두 잡구요. 술두 막 중간 중간에 이술, 저술 막 있는 거구, 어우, 막 감동을 받는거죠. 그러더니 가시는 길에 배 곡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분의 태도가 일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진거죠. 그 분은 인제는 우리가 얘기하면 귀담아 듣구요. L1

시간의 경과와 경험의 축적은 남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여준다.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중에는 민간단체가 이런 식의 내용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협력, 협조 이런 것 들이 가능하게 된 거지요. S1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접촉의 차원자이 다양화된다. 예를 들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나 떡 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점차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간식을 가지고 방북하여 사업 현장에서 나누어 먹은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다.

누가 “굿바이”이러는 거예요. 정말 큰 소리로, 순간적으로 제가 재 교육 받겠다. 싶은 거예요. 재 끌려가겠다. 그래서 차를 타려 다가 다시 돌아 선거예요. 돌아서 웃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무마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당 간부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한 50여명이 있었는데 그 말에, 굿바이라는 말에 어느 누구도 동요가 없었어요. 그니까 모든 거 통일되는 날 하루빨리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뭐 이러면서 굿바이 하고 한사람이 그랬는데, 똑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Y1

2) 참여자의 자세와 이해 능력의 제고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공간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입장과 자세가 중요하다. 대북지원사업에서는 남쪽 담당자들은 비교적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북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복되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인식을 갖고 있는가는 이해

증진이나 원활한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민화협도 사람이 참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서 뭐 1년..다음에 가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오래 했었던 사람들은 지원본부에 대해 잘 알죠... 잘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오래 하고 지원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북쪽에서도 참사들의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민간단체 지원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를 거고 좀 우호적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죠. 뭐든지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들죠. U1

제가 담당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거예요. 그 책임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어떤 소명의식, 이게 내가, 그니까 소명의식, 저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북지원에 있어서, 그니까 그게 종교단체의 포교나 이런 거에 대한 소명의식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시민단체의 실무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Y1

대북지원의 접촉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높은 경우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접촉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갖추어지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일종의 ‘해독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비둘기파냐 매파냐에 따라서 감각으로, 얘기를 해보고 감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에서도 낯 설은 거 싫어 하지만 우리 활동가도 많이 가 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게 매뉴얼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물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 속에서 해독 능력이 돼야 돼요. Y1

3) 대상의 차별성

대북지원의 접촉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방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과 노년간의 차이가 있다.

내가 선생님 수제잡니다. 수제잡니다. 그니까 우리도 너는 이 선생님 수제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것 도 생각해 봤는데 이걸 어떻게겠습니까? 그니까 그 오래간만에 누가 오면 막 달라붙어 가지구서 뭐 이렇게 막 하듯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 내는 거예요. L1

북한의 노년층은 경쟁의식도 있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남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의 획득에 적극적이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관계형성을 맺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한 경우, 집단별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건축팀이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의료진들은 장기간 몇 년에 걸쳐 만나니까 서로 다 알아보고 깊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도 많이 보는 편이고 200X년도에는 XXX 지으면서 교육을 한달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K1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남북의 실무자들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이나 남북관계 및 남북의 내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반면에 사업자체의 실무적인 분야 특히 기술부분 종사자간은 직업의 동질성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통이나 교류의 폭이 넓다.

4) 공동 목표의 존재와 논의 주제의 한정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대북지원의 접촉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의견충돌을 겪는다.

요즘에는 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오전오후 다 나눠서 , 근데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분위기가 안 좋거나 현장방문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K1

그러나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사업목표가 있고, 이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실적을 달성하여야 하고, 남한 사람들은 지원사업을 후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북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방북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실무적인 합의를 강제하게 된다. 따라서 남이나 북이나 타협점을 찾게 된다.

저희입장에는 수궁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 때 우리가 목적이 이거라면 저희도 세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조울 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2시간 있어야 되는데 30분 있다가 나온단다가, 이제 그런 방법적인 걸 찾아가는 편이에요. K1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힘든 일까지 시키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

는 거죠. 이제 반은, 못 만나게 할려구. 근데 우린 아니죠. 우리 얼어 죽겠는데 좀 같이 하자. 힘들어 죽겠다. 이래 가지구 이제 진짜 협상과정까지 가면서 싸워요. “그렇다면 우리 안 들어온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몇 사람 주민들 빼서 한 대에서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Y1

목표 달성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념체계를 토대로 발전하여온 남북한은 적대적 갈등을 지속한 결과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많다. 체제와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데 대북지원의 접촉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 정치, 이런 얘기하지 말고, 대신 교육, 가족 애긴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옴게 날씨, 그 다음에 자녀 교육문제, 그 다음에 가정과 얘기, 요정도 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 말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Y1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접촉하고 있는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일상사는 관계 증진을 위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치적 환경변화

정치적 차원의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면 대북지원의 접촉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증진이나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0년도 정상회담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실 민간단체에 방법이나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해 졌을 거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남, 북, 교외 협력에 양이나 질에 이런 부분을 더 넓혀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남쪽에서도 좀 있었고 북쪽에서도 인제 어차피 김정일 차원에서도 인제 어차피 남쪽의 정상과 만났으니까 남쪽과의 교류 협력을 더 넓혀 나가자 라는 분위기가 아마 당시는 있었을 거고.... S1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화해를 지향하게 되면 대북지원 사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조건을 형성한다.²¹⁾ 그러나 더 나아가 접촉공간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배권력의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북한

21) 김민주,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1호(2012), 85~86쪽.

의 주민에게 더욱 영향력이 크다.

6) 신뢰 있는 중간 매개자의 존재

대북지원 과정은 전문적인 지원단체가 중심이 되고,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분야 조직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²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원단체 실무자들은 대북사업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반면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들은 북한이나 북한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의 사업에 경험이 있고, 상대방에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방식의 통역이 필요한 거지요. ○○을 소개할 때에 ○○은 대학교수로 있다. 이렇게 소개를 북한에 했을 때에 북한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 다 라고 소개를 할 때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사업의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OK 관심 있다 만나보자 해서 우리가 방문할 때 같이 가 만나다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요. H1

6. 대북지원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특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의 현장은 차별성이 적지 않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접촉공간이 북한 영토로 제한되고 평양지역으로 주로 중심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개성, 신의주, 금강산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의료보건 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연료 및 식량 지원사업 등 업종도 다양하고 지원단체 별로 사업의 지속기간이나 참여하는 사람별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북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로 한 남북관계의 성격도 동일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현장을 경험한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의 면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면접조사 결과 나타나는 대북 지원 NGO의 접촉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여자-수혜자 관계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남한의 우월의식과 북한의 패배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선입견의 존재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외부로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원의 주체인 남한 사람들은 지원활동의 지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하기 때문

22) 예를 들어 의료지원 사업의 경우는 대북지원단체와 의료나 보건 관련 단체나 기관이 결합하는 양식이다.

이고 북한사람들은 사업의 성패가 정치적인 책임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여타 인도적 구호 지원 사업에서와는²³⁾ 달리 북한 사람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특성상 그러하겠지만 남한의 물질적 지원을 민족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을 표현하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나 지원 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우월할 물자와 기술 등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둘째, 가치의 차원에서는 남북한 마음의 체계가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차이와 장기간에 걸친 대결적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북지원의 출발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에 있었고, 대북지원에는 민족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원활동과 관련된 접촉지대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에서 가치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피하려는 남북한주민들의 노력도 일정한 기여를 한다. 또한 접촉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도 가치관의 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남북 간 마음체계 간에 적지 않은 긴장이 조성되었다. 남한의 지원단체의 사람들은 남한주민의 후원(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향한다. 반면 북한의 실무자들은 관료제의 절차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대상 집단 간의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판단이나 행위의 핵심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단계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접촉빈도가 많아지고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나 긴장이 반복되는 것은 효율지향의 사고방식과 명분 우선의 사고방식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접촉의 대상에 따른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사업 전문가 보다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의사간이나 건설노동자간의 접촉과 같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집단 간에는 상호이해의 폭이 넓고 변화 속도도 빠른 반면, 남과 북의 대화나 협상 실무자들은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경우 노년층과 젊은 층 간 차이가 적지 않다.

다섯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한 지원 활동을 하는 NGO의 경우에도 조직단

23) 일반적인 국제원조에 대해서는 정보배·김희강, “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OUGHTOPIA*, Vol. 27 No. 1(2012) PP. 72-77; 문경연, “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글로벌정치연구』, 제6권 제1호(2013), 9-10쪽 참조.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0), 34~50쪽 참조.

체 별로 차별성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남쪽 조직의 특성(단체의 발생론적 특성 혹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대북지원 사업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민단체는 대북지원과정에 원칙의 유지 및 과시가 중요한 반면 대북사업의 성사를 절대전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쪽 단체의 실무자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정도 그리고 사업 경험도 차별화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접촉이 반복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의 변화에 나타났는데 이것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의식을 갖고 있거나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은 북한의 이념이나 가치에 동조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은 약화되는 등 가치부분의 변화가 있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대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어려운 현실에 동정심을 느끼고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²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원활동을 접하거나 실제로 지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남한 사람이나 남한체제에 대한 적개심이 완화되는 경향 있으나 이 경우도 주로 정서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7. 맺음말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이 갖는 특성은 남북주민들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이후 지속된 적대적 대결관계와 체제차이에서 비롯된 마음체계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선입견과 정치적인 차원의 남북관계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접촉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촉지대와 달리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북지원 실무자와 관련 사업 전문가들이 결합되는 접촉공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접촉은 상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하였고, 충돌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타협을 위한 협상의 기술도 발전시켜 마음체계의 순응에 도움을 주었다. 남한의 참여자들 가운데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대북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집단이었고, 북한의 참여자들은 직업의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의 성과가 반영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체계가 상호작용에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층성은 상호작용 차별화의 원인이 되었다.

24) 대북지원 사업의 과정에는 실무적인 접촉과 별도로 다수의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북한의 지원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북 기간 동안 북한사람들과 충돌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경향인 사람들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한의 현실을 목격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K1, S1 증언. 대북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신교에서도 보수적인 집단이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범진, “한국 개신교의 대북지원 성격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5호(2011), 35쪽.

접촉지대로서 NGO 대북지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현상으로 통일과정 특히 사회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대북지원 공간에서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과정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참여한 남북한 주민들을 모두 조사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남쪽 참여자들만을 면접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의 북한주민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자료

1) 단행본

김국신, 『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근식,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06).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2) 논문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 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권 1호(2008).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권 1호(2005).

김민주,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한국행정연구』, 21권 1호(2012).

김정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 연구』, 19권 1호(2010).

문경연, “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글로벌정치연구』, 6권 1호(2013).

문경연,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14권 9호(2012).

이범진, “한국 개신교의 대북지원 성격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5 (2011).

이상림,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통일문제연구』, 25권 2호(2013).

이우영,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쟁점 및 개선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13권 7호(2011).

양문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사회적 효과,” 『동향과 전망』, 70(2007).

양문수·윤철기,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정보배·김희강, “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OUGHTOPIA』, 27권 1호(2012).

3) 기타 자료

<http://ksm.or.kr/index.html> 2014.6.1. 검색.

http://www.okfriend.org/about_us?tab=tab_our_way 2014.6.1. 검색.

제 3 발표

“국가 레짐과 국가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in OECD Countries : with a focus on Korean PART system

TJ LAH,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Research Goal

❖ Purpose of Study

- Analyz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Korea by comparing program evaluation system of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 US, UK, and Australia & Korea
- Find out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

❖ Research Question

- Does KPART achieve its purpose by follow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Data

- OECD International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DB

Introducti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 Performance Management

- A Rational and systematic movement in the organizations or policy units to achieve policy goals
- Includes managerial control in policy process, confirmation of policy outcomes
-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feedback of performance information
- Improves the quality of performance in the next stage

❖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 A part of performance management
- Refers to a system that manages the performance of budgetary program.

Introduction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 US

- Implementation of 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in 1994
- Showed limitation in budget allocation and finance management
-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mplementation (OMB)
- GPRAMA (2010)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of Plan-Program-Performance information

❖ UK

- Abolished Public Service Agreement, the basi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Introduced a system that checks the performance goals in the Departmental Business Plan

❖ Korea

- Promoted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 Established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lmost similar to the PART)
- Adopted K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of Korea)
- In general, Korea benchmarked the advanced foreign systems

Theoretical background

Purpose of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 Purpos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1.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rograms, and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2. To Strength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accountability** of finance department in the budget process or resource allocation process
3. To Strengthen extern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the assembly and the public, and clarif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bureaucrats
4. To help reduce budget

Theoretical background

Purpose of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 Classification of Public Accountability >

Hoek, et al. (2005)	Romzek & Dubnick (1987)	Kopell (2005)	Ospina et al. (2004)	Mulgan (2000)	Lee, J. S. (2001)	Choi, S. B. (2001)
Vertical	Political Legal	Liability Controllability Transparency	Political Managerial	External	Legal Responsiveness	Legal Responsiveness
Internal	Bureaucratic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ntrollability Transparency	Managerial	Internal	Ethical responsibility	Moral responsibility
Customer	Political Legal	Responsiveness Transparency	Political	External	Responsiveness	Moral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Social	Political Legal	Responsiveness Transparency	Political	External	Responsiveness	Moral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Theoretical background

Framework for Analyzing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1. Vertical accountability

Following the policy direction or managerial guidelines of **supervisory authorities**

2. Internal accountability

Effective management and control through secur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public agencies

3. Social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to the society including the **direct/indirect customers** of the policy service

4. Technical efficiency

Accountability to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efficiently

Theoretical background

Budgetary Program Evaluation System of Korea

	Management by Performance Objectives (1st stage, Monitoring)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2nd stage, Review)	Intensive Program Evaluation (3rd stage, Evaluation)
Targets	All Budget programs	1/3 of budget programs (three-year period assessment)	Budget programs (or group of programs) that have financial problems
Main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agement of performance objectives and indicators in performance pla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nalysis by performance report 	Assessment by Check list	In-depth Analysis of the budget program
Range of targets	50 departments, about 2,000 programs	Annually about 500 programs	Annually about 10 programs (or group of programs)

< Lee, T. S. (2013). "Program Assessment: Budgetary Program", p.158.>

- ◆ Introduced 'Top-down Budget System' in 2003 to reinforce the connection to budget programs, and provide each departments autonomy in budget planning. Also Performance Objective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 ◆ Developed performance objectives and indicators by referring to **GPRA**
- ◆ Set the assessment items and criteria, and adapted KPART considering Korean reality
→ Secur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Objective Management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1. Characteristics of central budget authority

Q.1 Where is the function of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located?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Ministry of Finance		1	1		25	83.3
President's office				1	1	3.3
Prime Minister's office						
Independent Agency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is split between two or more agencies	1				2	6.7
Other					2	6.7

- ◆ Mostly the Ministry of finance is central budget authority in Korea, UK, and other OECD countries (25 countries, 83%)
- ◆ In the US, OMB is central budget authority
- ◆ Australia has a dual structure of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1. Characteristics of central budget authority

Q.2 Who is the head of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Political appointee		1		1	10	33.3
A senior civil servant	1		1		20	66.7

- ◆ The head of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is divided into 'political appointee'(33.3%) and a senior civil servant(66.7%)
- ◆ Korea and US fall under the former, and Australia and UK are the latter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1. Characteristics of central budget authority

Q.3 What is the total number of staff working in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Australia	Korea	UK	US
Number of staff working	850	846	800	475

- ◆ The number of staff working in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varies in OECD countries, from 35 staffs in Finland to 2,250 to staffs in Canada
- ◆ Australia has the largest number of staff except Canada, followed by Korea and UK
- ◆ The number of staff in US is 475, smaller than that of Mexico (770) and Island (613)
- ◆ The average number of staff in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of OECD countries is 274 (except Canada)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2. Introduction tim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Q.4 In which year was the first Government-wide initiative to introduce performance measures?

	Australia	Korea	UK	US
year	1999	2004	1998	1993

- ◆ Introduction tim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varies in OECD countries
- ◆ US introduced performance management in 1993.
- ◆ We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Austria, Italy, France, and Netherland introduced in early 2000s
- ◆ Korea introduced performance management in 2004 and approximates with Turkey and Portug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3. Evaluation institution and contents

- Q.2 What types of evaluations are commissioned and/or conducted by the following institutions?

Q.2.a Review of ongoing programs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Central Budget Authority	1	1	1		14	46.7
Ministry of Finance			1		16	53.3
Line Ministries		1	1	1	23	76.7
Supreme Audit Institution	1		1	1	19	63.3
Legislature				1	5	16.7

- ◆ Line Ministries function as main evaluation institution in overall OECD countries
- ◆ Line Ministries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cost effectiveness of budget programs
- ◆ The type of evalu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 is mostly review of ongoing programs or ex post review, including UK, US, Australia, and Korea; a priori assessment is not much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3. Evaluation institution and contents

- Q.2 What types of evaluations are commissioned and/or conducted by the following institutions?

Q.2.b Ex post review of programs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Central Budget Authority	1	1		1	10	33.3
Ministry of Finance				1	13	43.3
Line Ministries		1	1	1	22	73.3
Supreme Audit Institution	1	1	1	1	23	76.7
Legislature				1	9	30.0

Q.2.c Review of new initiatives or programs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Central Budget Authority	1	1	1	1	13	43.3
Ministry of Finance			1		14	46.7
Line Ministries		1	1	1	22	73.3
Supreme Audit Institution				1	8	26.7
Legislature				1	4	13.3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3. Evaluation institution and contents

● Q.2 What types of evaluations are commissioned and/or conducted by the following institutions?

- ◆ In all OECD 4 countries, Line Ministries and Central Budget Authority conduct evaluation on the programs
- ◆ Australia : Line Ministries does not play a major role in evaluation
- ◆ UK : Central Budget Authority conducts evaluation on the new initiatives or ongoing programs, But doesn't for Ex post review
- ◆ US : OMB intervenes in both ex ante and ex post evaluation. Supreme Audit Institution and Legislatur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ex ante, ongoing, ex post evaluation
- ◆ Korea: Ministry of Finance and Line Ministries are the major players
- ◆ Australia: Ministry of Finance has a major say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3. Evaluation institution and contents

● Q.2 What types of evaluations are commissioned and/or conducted by the following institutions?

Q.2.e Efficiency and/or cost effectiveness reviews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Central Budget Authority	1	1	1	1	12	40.0
Ministry of Finance			1		12	40.0
Line Ministries		1	1	1	21	70.0
Supreme Audit Institution			1	1	16	53.3
Legislature				1	4	13.3

- ◆ US focuses on ex ante and ex post review; UK on ongoing programs
- ◆ Korea on ex post review of programs
- ◆ Australia on every stage of programs, But Central Budget Authority is mainly concerned role of Line Ministries is limite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4. Evaluation of Non-financial performance

Q.1 What types of performance information are produced to assess the Government's non-financial performance?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None					2	6.7
Performance targets	1	1	1	1	21	70.0
Performance measures	1	1	1	1	24	80.0
Evaluation report	1	1	1	1	25	83.3
Benchmarking	1				9	30.0
Other				1	3	10.0

- ◆ OECD countries use performance information in various ways such as evaluation report, performance measures, performance targets
- ◆ All 4 OECD countries use three types(performance targets, performance measures, evaluation report) of performance information; Australia uses Benchmarking and US uses Expert panel assessments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4. Evaluation of Non-financial performance

Q.3 What type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for Central Government?

Q.3.a Output measures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Yes	1	1	1	1	27	90.0
No					3	10.0

Q.3.b Outcome measures

Yes	1	1	1	1	22	73.3
No					7	23.3
Missing answer					1	3.3

Q.3.c Other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Yes		1			11	36.7
No				1	16	53.3
Missing answer	1		1		3	10.0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4. Evaluation of Non-financial performance

< Character of measures and examples >

	Australia	Korea	UK	US
Number of output measures	200	2,496	-	2,500
Examples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Project to enhance literacy and numeracy outcomes	-number of government support for Tour Resource Development -number of beneficiaries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fiber industry	-Waiting times for hospital treatment -Number of police officers	- Troops-to-Teachers: percentage of participants who remain teaching 3 or more years after being placed in a teaching position in a high-need school district - Navigation services: the hydrographic survey backlog within navigationally significant areas to be surveyed
Number of outcome measures	242	1,472	-	1,200
Examples	Individuals achieve high quality foundation skills and learning from schools and other providers	-Percentage reduction in mining accident - Collection rate of abandoned vinyl	-Crime rates -Educational attainment of school children	- Homeless Assistance Grants: percentage of formerly homeless persons who remain housed i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ermanent housing projects for more than 6 months - Internal Revenue Service Investigations: conviction rate
Input measure /Process measure		728		

- ◆ Most OECD countries use output measures and outcome measures together
- ◆ Korea uses most measures of all countries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5. Performance-expenditure link

Q.6 Are expenditures linked to performance goals or objectives?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No			1		7	23.3
Yes, 0-20% of expenditures				1	5	16.7
Yes, 21-40% of expenditures						
Yes, 41-60% of expenditures					1	3.3
Yes, 61-80% of expenditures					1	3.3
Yes, 81-100% of expenditures		1			7	23.3
Missing answer	1				9	30.0

- ◆ Korea has a high-levels of link between performance targets and expenditure.
- ◆ Korea and Canada, Finland, New Zealand fall under the range of 81-100%
- ◆ UK and US are far different from Korea
- ◆ US limited link such as finishing the program early when the program achieves its performance goals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6. Setting and achieving performance targets

Q.9 If performance targets cut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ies who is responsible for achieving them?

	Australia	Korea	UK	US	Total(OECD)	Percentage(%)
No one					2	6.7
One of the relevant ministers					2	6.7
All of the relevant ministers	1		1	1	14	46.7
The highest ranking civil servant in one of the relevant organisations						
The highest ranking civil servant in each of the relevant organisations					3	10.0
Other		1 (the prime minister)			6	20.0
Missing answer					3	10.0

◆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the prime minister has responsibility as a mediator for inter-organizational performance targets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7. Performance report

1) Reporting institutions

- Australia, UK, and US, ministries/government report on performance to the legislature
- Korea: line ministry to Central Budget Authority and Prime Minister's Office
- US reports performance to many institutions: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 OMB and other institutions

2) Openness to the public

- Most countries are presenting performance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one form or another
- US and UK: internet site for performance information
- US is most positive
- Korea, hesitant opening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OECD 4 Countries

8.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1) Use as part of the budget discussions/negotiations between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and line/spending ministries

- Most countries use performance information as a part of the budget discussion/negotiations, but it is just as a **reference** material
- Australia and Korea use performance information as a **hard basis** for negotiation

2) Purpose of 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 OECD countries have a common practice that central budget authority and line ministries use performance information as a **basis of compelling or pushing change** in programs
- US: almost never
- UK: justifying existing allocations to specific activities/programs
- **Korea: strict and mechanical use in cutting expenditures of the following year**
- Few countries eliminate programs if performance targets are not met

Problems of the KPART

1. Vertical accountability

OECD countries	Korea
- Self assessment of line ministries	- Evaluation of CBA
- Performance information is reported internally	- Performance information is presented to CBA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e → subject to intervention of budget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 : line ministries are excluded from evaluation, but supervision authority of Supreme Audit Institution(ANAO) is powerful - UK : the cabinet sets performance targets, ministry of finance reviews expenditures and sets performance goals. performance information are presented to the legislature related to PSA targets - US : doing prior/ex post evaluation from the legislature and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 CBA has a strong control of line ministries

Problems of the KPART

1. Vertical accountability

Year of evaluation	Evaluation grade	Number of programs	Budget of Year in evaluation (A)	Budget of following fiscal year(B)	variation	
					(B-A)	%
2010 <programs of 2009's>	Total	473	45.4	47.3	1.9	3.9
	Very good/ Good	22	0.7	0.8	0.1	9.8
	Average	335	40.9	43.6	2.7	6.5
	Poor/ Very poor	116	3.8	3.3	△0.5	△12.5
2011 <programs of 2010's>	Total	389	51.6	50.7	0.9	△1.7
	Very good/ Good	26	1.9	2.0	0.2	5.8
	Average	246	46.2	45.7	△0.5	△1.0
	Poor/ Very poor	117	4.3	3.9	△0.4	△10.4
2012 <programs of 2011's>	Total	405	33.6	36.1	△2.5	7.2
	Very good/ Good	27	3.2	3.3	0.2	5.2
	Average	281	28.7	31.3	△0.3	9.1
	Poor/ very poor	97	1.8	1.5	△0.3	△18.5

- ◆ very poor/poor programs had a budget cut in comparison to budget of the previous fiscal year during recent 3 years
- ◆ By National Finance Act, the Minister of finance has authority with evaluation of budget programs, and results of the evaluation can be reflected in operation of budget
- ◆ Results of KPART, rated on five grade, determine the reduction of programs

Problems of the KPART

1. Vertical accountability

- ◆ Korea makes a strong use of PI as a basis for budget cut and even program abolishment
- ◆ Has a stronger link of performance results and budget, more than in US
- ◆ CBA mechanically applies the strict criteria to reduce or end programs
- ◆ No room for intervention of the legislature in evaluation
- ◆ Even if the legislature can intervene in evaluation, it is a confirmation or check of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s a mere formality

Problems of the KPART



2. Internal accountability

- ◆ Has larger numbers of policy programs than most OECD countries do
- ◆ Prefers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 ◆ If performance targets cut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ies, the prime minister is responsible for performance

Problems of the KPART



3. Social accountability

- ◆ US
 - CBA, legislature, supreme audit institutions, and expert panel
 - overlap use of many tools to open the PI: websites, publication of reports, present to the legislature
- ◆ Korea
 - Results of KPART are limitedly open to the public
 -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s low
 - little room and necessity for intervention for National Assembly

Problems of the KPART

4. Technical efficiency

- ◆ UK and US: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ervene in efficiency and cost effectiveness evaluation
- ◆ US: the legislature
- ◆ Korea
 - focus on the **ex post** evaluation than ex ante
 - focus on **output measures** than outcome measures
- ◆ Globally, it is very rare that cutting the budget of following fiscal year is based on performance information

Problems of the KPART

4. Technical Efficiency

< Results of KPAR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Year	Number of programs	Plan (100점)			Process (100점)	Outcome /feedback (100점)
		Program plan (50)	Performance plan (50)	Total		
2008	9	48.6	36.3	84.9	63.9	61.2
2009	9	50.0	27.8	77.87	75.0	61.9
2010	9	50.0	27.8	77.8	88.9	49.5
2011	10	50.0	40.0	90.0	69.7	51.0
2012	9	50.0	47.2	97.2	60.2	55.8
2013	21	50.0	37.7	87.7	64.8	52.8
Average		49.8	36.1	70.6	70.4	55.4

- ◆ Korea is weak in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 ◆ For example, average scores of phased results(plan/process/outcomes-feedback) show that score of outcome/feedback is consistently low
- ⇒ Even though Korea introduced KPART, it remains a major task of improving performance

Policy Implications



- ◆ Focus on ex ante assessment
- ◆ Seek flexible link between assessment results and budget allocation
- ◆ Allow intervention of external player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제 4 발표

“정책 시그널의 모호성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공조”

윤 택 (서울대 경제학부)

Ambiguous Policy Signals and Monetary Policy Coordin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pared for SSK Presentation

Outline

-

Key Features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ycle

- ①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go in hand with the recent emphasis on the global financial cycle.
- ② The global financial cycle arise with global financial factors that generate large common movements in asset prices, gross flows, and leverage in emerging-market countries.
- ③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global financial cycle are not only monetary conditions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changes in risk aversion and uncertainty.
- ④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U.S.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its monetary conditions affect capital flows and the leverage of the financial sector in many emerging-market economies.
- ⑤ Independent monetary policies are possible if and only if the capital account is managed by using macroprudential policies.

Tack Yun (SNU)

GFCM

12/05/2014

3 / 65

Recent Monetary Policy “Dilemma” in Emerging-Market Economies

- ① Transmission of U.S. monetary conditions to the rest of the world
 - Monetary conditions are transmitted from the main financial center to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gross credit flows and leverage, irrespective of the exchange rate regime.
- ② Irrelevance of exchange-rate systems for independent monetary policies
 - Fluctuating exchange rates cannot insulate economies from the global financial cycle, when capital is mobile.
- ③ Need for the management of capital account to restore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 Independent monetary policies are possible if and only if the capital account is managed, directly or indirectly, regardless of the exchange-rate regime.
- ④ Reference: “Dilemma not Trilemma: The Global Financial Cycle and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Helene Rey (2013)

Tack Yun (SNU)

GFCM

12/05/2014

4 / 65

Policy Options

① Capital controls

- Permanent capital controls for subset of assets either on the inflow side or the outflow side.
- Temporary controls, especially on credit flows and portfolio debt when the cycle is in a boom phase could be used: Chilean encaje (1991-98) and Brazilian taxes on equity inflows and others (2010, 2011).

② Cyclical macro-prudential measures to limit excessive credit growth

- Basel III has a counter-cyclical capital cushion that can be activated in boom times.
- Loan-to-value ratios and debt-to-income ratios can be used in order to restrict lending and keep real estate prices in check.

③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monetary policies

- Central bankers of systemically important countr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ir policy st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st of the world.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onetary spillovers may conflict with the domestic mandates of central banks.

◀ ◻ ▶ ◀ ◻ ▶ ◀ ≡ ▶ ◀ ≡ ▶ ≡ ≡

Tack Yun (SNU)

GFCM

12/05/2014

5 / 65

Macroprudential Measures

Policy tools	Countries
Changes in reserve requirements	Brazil (2010 ^{1/2}), China (2010), Peru (2010), Russia (2009), Taiwan (2010), Turkey (2010-11)
Real estate measures (Lowered LTV ceiling, DSR and caps on D/TI for mortgage loans)	China (2010-11), India (2010), Hong Kong SAR (2009-10), Korea (2009) Malaysia (2010), Hungary (2010)
Limits to FX exposure (Ceilings on FX positions,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for FX credit exposure)	Brazil (2011 ^{2/3}), Indonesia (2010), Hungary (2010) Korea (2010), Peru (2010 ^{3/4}), Philippines (2010), Russia (2009-11), Turkey (2010-2011)
Elements of dynamic provisioning (Countercyclical provisioning scheme, capital buffers on loans, issue of securities to stabilize FX liquidity)	China (2010), India (2009-10), Israel (2010), Mexico (2010), Turkey (2009-10)
Taxes on capital inflows (FX loans, FX investment on short-term currency futures, FX investment on fixed income)	Brazil (2009-12 ^{4/5}), Korea (2011), Peru (2010), Thailand (2010)
Reduced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s on foreign debt	Colombia (2010), Russia (2010)
Interest rate ceiling on external borrowing	India (2009-10)

¹Partially reversed in 2011; ²Partially reversed in 2012; ³Reduced in 2011; ⁴Partially reversed in 2012.
Sources: BIS, IMF, Bank of Canada.

Tack Yun (SNU)

GFCM

12/05/2014

6 / 65

Recent Challenges for Emerging-Market Economies

1 Recent Experiences in EMEs

- After Chairman Bernanke's talk in May 2013 regarding a possible time-line for the tapering, there were strong market reactions globally and EMEs experienced significant sell-off.
- There was another round of EME sell-off in January 2014.

2 In what way and to what extent EMEs would be affected by the exit of QE and normalisation of US interest rates?

-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size of the dollar carry trade that have flowed into EMEs and what impact such carry trade would have on EMEs when it unwinds.
- What policy responses or measures would be available and desirable for EMEs when they want to mitigate the risk of shocks or turbulence during this period?

③ Referen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Remarks by Norman Chan,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March 2014.

A set of small navigation icons typically found in Beamer presentations, including symbols for back, forward, search, and other slide controls.

Tack Yun (SNU)

GFCM

12/05/2014

9 / 65

A Model of Small Open Economies

- 1 Two countries H (Home) and F (Foreign) exist in the world.
- 2 A fraction of agents $[0, n)$ of unit mass lives in country H and the other fraction $(n, 1]$ belongs to country F .
- 3 A continuum of differentiated goods exists in the world.
- 4 Each country produces a number of different brands with measure equal to population size.
- 5 Fiscal policy regime is assumed to be Ricardian.

A set of small navigation icons typically found in Beamer presentations, including symbols for back, forward, search, and other slide controls.

Tack Yun (SNU)

GFCM

12/05/2014

10 / 65

Household's Optimization

1 Household's Optimization Problem

$$\max \sum_{t=0}^{\infty} \beta^t E_0 \left[\frac{C_t^{1-\sigma} - 1}{1-\sigma} - \frac{H_t^{1+\varphi}}{1+\varphi} \right]$$

subject to a sequence of one-period flow budget constraints

$$\mathcal{E}_t E_t [Q_{t,t+1} B_{F,t+1}] \leq \mathcal{E}_t B_{F,t} + W_t H_t - P_t C_t - P_{H,t} T_t + \Phi_t$$

2 Definitions of Composite Consumption and Consumer Price Index

- Composite consumption of home residents

$$C_t = (a_H^{1/\theta} C_{H,t}^{\frac{\theta-1}{\theta}} + (1-a_H)^{1/\theta} C_{F,t}^{\frac{\theta-1}{\theta}})^{\frac{\theta}{\theta-1}}$$

- Composite consumption of foreign households

$$C_t^* = (a_H^{*1/\theta} (C_{H,t}^*)^{\frac{\theta-1}{\theta}} + (1-a_H^*)^{1/\theta} (C_{F,t}^*)^{\frac{\theta-1}{\theta}})^{\frac{\theta}{\theta-1}}$$

- Definition of consumer price index

$$P_t = (a_H P_{H,t}^{1-\theta} + (1-a_H) P_{F,t}^{1-\theta})^{\frac{1}{1-\theta}}$$

Tack Yun (SNU)

GFCM

12/05/2014

11 / 65

Household's Optimization Conditions: Complete Market

1 Domestic Household's Optimization Condition

$$Q_{t,t+1} = \beta \frac{\Lambda_{t+1} P_t \mathcal{E}_{t+1}}{\Lambda_t P_{t+1} \mathcal{E}_t}$$

2 Foreign Household's Optimization Condition

$$Q_{t,t+1} = \beta \frac{\Lambda_{t+1}^* P_t^*}{\Lambda_t^* P_{t+1}^*}$$

3 Evolution of Marginal Utilities of Consumption and Real Exchange Rate

$$\frac{\Lambda_{t+1}}{\Lambda_{t+1}^*} Q_{t+1} = \frac{\Lambda_t}{\Lambda_t^*} Q_t$$

4 Relation between Marginal Utilities of Consumption and Real Exchange Rate

$$C_t^\sigma = (C_t^*)^\sigma Q_t$$

Tack Yun (SNU)

GFCM

12/05/2014

12 / 65

Assumption of Small Open Economies and Parameter Values

- 1 The assumption of small open economies corresponds to setting $n \rightarrow 0$.
- 2 This assumption is imposed on two parameters, a_H and a_H^* , after optimization conditions of households are obtained.
 - a_H represents the contribution of home goods in the composite consumption of domestic households.
 - a_H^* measures the contribution of home good in the composite consumption of foreign households.
- 3 Specifically, a_H depends on the size of population and the degree of openness: $a_H = n\lambda + (1 - \lambda)$ and $a_H^* = n\lambda$.
- 4 The contribution of home goods in the total consumption rises as the size of population increases and decreases as the degree of openness increases.

◀ ◻ ▶ ◀ ◼ ▶ ◀ ≡ ▶ ◀ ≡ ▶ ≡ 🔍 ↺

Tack Yun (SNU)

GFCM

12/05/2014

13 / 65

Aggregate Demand and Social Resource Constraint

- ### ① Aggregate Demand Equation

$$Y_t = \left(\frac{P_{H,t}}{P_t}\right)^{-\theta} ((1-\lambda)C_t + \lambda Q_t^\theta C_t^*) + G_t$$

- ## 2 Consumer Price Index

$$P_t = ((1 - \lambda)P_{H,t}^{1-\theta} + \lambda P_{F,t}^{1-\theta})^{\frac{1}{1-\theta}}.$$

- ### ③ Relation between Terms-of-Trade and Real Exchange Rate

$$(P_{H,t}/P_t)^{1-\theta} = (1 - \lambda Q_t^{1-\theta})/(1 - \lambda)$$

- #### ④ Aggregate Market Clearing Condition

$$P_{H,t}(Y_t - G_t) = P_t(C_t + NX_t)$$

Tack Yun (SNU)

GFCM

12/05/2014

14 / 65

Nominal Price Rigidity

- 1 The optimizing firms should pay attention to future marginal costs and price levels when they are required to fix their prices for a certain number of time periods.
- 2 Hence, to the extent which the central bank can influence private agents' expectations regarding future price levels, the central bank's commitment on future price levels can have impac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urrent inflation rate.
- 3 In each period, a fraction of domestic firms, $1 - \alpha$, reset their prices, while the other do not. All domestic firms are assumed to set their prices in the unit of domestic currency.
- 4 The law of one price holds between foreign prices and home price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goods.

Profit Maximization of Domestic Firms

- ### ① Profit Maximization Problem of Firms

$$\max \sum_{k=0}^{\infty} (\alpha\beta)^k E_t [\Lambda_{t+k} (\frac{P_{H,t}^*}{P_{H,t+k}})^{-\epsilon} Y_{t+k} (\frac{P_{H,t}^*}{P_{H,t+k}} - \frac{W_{t+k}}{A_{t+k} P_{H,t+k}})]$$

- ## 2 Recursive Representation of Optimization Condition

- Expected present-value of marginal revenues

$$F_t = C_t^{-\sigma} Y_t + \alpha \beta E_t[\Pi_{H,t+1}^{\epsilon-1} F_{t+1}]$$

- Expected present-value of marginal costs

$$L_t = \frac{\nu\epsilon}{\epsilon - 1} \frac{H_t^{1+\chi} P_t}{\Delta_t P_{H,t}} + \alpha\beta E_t[\Pi_{H,t+1}^\epsilon L_{t+1}]$$

- Optimization condition

$$\frac{P_{H,t}^*}{P_{H,t}} = \frac{L_t}{F_t}$$

Inflation and Relative Price Distortion

- 1 Definition of Price Level: GDP Deflator

$$1 = (1 - \alpha) \left(\frac{P_{H,t}^*}{P_{H,t}} \right)^{1-\epsilon} + \alpha \Pi_{H,t}^{\epsilon-1}.$$

- 2 Relative Price Distortion

$$\Delta_t = (1 - \alpha) \left(\frac{P_{H,t}^*}{P_{H,t}} \right)^{-\epsilon} + \alpha \Pi_{H,t}^{\epsilon} \Delta_{t-1}.$$

- 3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Y_t = A_t H_t / \Delta_t.$$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Government's Budget Constraint

- 1 The home government can issue nominal one-period risk-less securities, where $B_{H,t}$ is the total outstanding issue of government debt at period t .
- 2 The government's flow budget constraint at period t is given by

$$\frac{B_{H,t}}{1 + i_{H,t}} = B_{H,t-1} + \mathcal{E}_t(I_t^* - I_{t-1}^*) - P_{H,t}(T_t - G_t)$$

where I_t^* is the dollar value of international reserves held by the government at the end of period t , T_t is the real amount of lump-sum taxes at period t , and G_t is the government's real expenditures at period t .

- 3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 analysis of monetary policy with imperfect commitment, the government follows a Ricardian fiscal policy regime.
- 4 The government manages its debt to make its budget constraint hold in each period, irrespective of equilibrium decisions of households and firms.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Log-Linear Approximation of Aggregate Demand Equation

- 1 Aggregate Demand Equation

$$Y \hat{Y}_t = -\theta Y \hat{P}_{H,t} + (1 - \lambda) C \hat{C}_t + \lambda Q^\theta C^* (\theta \hat{Q}_t + \hat{C}_t^*)$$

- 2 By using steady-state relations of $Y = C = C^*$ and $Q = P_H/P = 1$, we have the following equation

$$\hat{Y}_t = -\theta \hat{P}_{H,t} + (1 - \lambda) \hat{C}_t + \lambda (\theta \hat{Q}_t + \hat{C}_t^*)$$

- 3 Log-Linear Relation between Terms-of-Trade and Real Exchange Rate

$$\hat{P}_{H,t} = -\frac{\lambda}{1 - \lambda} \hat{Q}_t$$

- 4 The log-linear relation between consumption, output, and real exchange rate is given by

$$\hat{Y}_t = (1 - \lambda) \hat{C}_t + \lambda \theta \frac{2 - \lambda}{1 - \lambda} \hat{Q}_t + \lambda \hat{C}_t^*$$

Tack Yun (SNU)

GFCM

12/05/2014

19 / 65

Log-Linear Approximation of Euler Equation

- 1 Euler Equation for Domestic Bonds

$$C_t^{-\sigma} = \beta E_t \left[C_{t+1}^{-\sigma} \frac{P_t}{P_{t+1}} \right] (1 + i_{H,t})$$

- 2 By using steady-state relations of $\Pi = 1$, we have the following equation

$$\hat{C}_t = E_t[\hat{C}_{t+1}] - \sigma^{-1} (\hat{R}_{H,t} - E_t[\pi_{t+1}])$$

where $\hat{R}_{H,t} = \log(1 + i_{H,t}) - \log(1 + i_H)$.

- 3 By using the log-linear approximation of aggregate demand equation, the dynamic IS curve is given by

$$\hat{Y}_t = E_t[\hat{Y}_{t+1}] - \frac{1 - \lambda}{\sigma} (\hat{R}_{H,t} - E_t[\pi_{t+1}]) - \sigma_q E_t[\Delta \hat{Q}_{t+1}] - \lambda E_t[\Delta \hat{Y}_{t+1}^*]$$

where $\sigma_q = (\lambda/(1 - \lambda)) (\theta(2 - \lambda) - (1 - \lambda)\sigma^{-1})$.

Tack Yun (SNU)

GFCM

12/05/2014

20 / 65

Log-Linear Approximation of Aggregate Demand Equation: Complete Market

- 1 Log-linear relation between consumption, output, and real exchange rate is given by

$$\hat{Y}_t = (1 - \lambda)\hat{C}_t + \lambda\theta\frac{2 - \lambda}{1 - \lambda}\hat{Q}_t + \lambda\hat{C}_t^*$$

- 2 Optimization condition for contingent claims at the complete market

$$\hat{C}_t = \hat{C}_t^* + \sigma^{-1}\hat{Q}_t$$

- 3 Log-linear relation between consumption, output, and real exchange rate is given by

$$\hat{Y}_t = ((1 - \lambda)\sigma^{-1} + \lambda\theta\frac{2 - \lambda}{1 - \lambda})\hat{Q}_t + \hat{C}_t^*$$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21 / 65

Log-Linear Approximation of Euler Equation: Complete Market

- 1 The dynamic IS curve is given by

$$\hat{Y}_t = E_t[\hat{Y}_{t+1}] - \frac{1 - \lambda}{\sigma}(\hat{R}_{H,t} - E_t[\pi_{H,t+1}]) - \sigma_q E_t[\Delta \hat{Q}_{t+1}] - \lambda E_t[\Delta \hat{Y}_{t+1}^*]$$

where $\sigma_q = (\lambda/(1 - \lambda))(\theta(2 - \lambda) - (1 - \lambda)\sigma^{-1})$.

- 2 Log-linear relation between consumption, output, and real exchange rate is given by

$$\hat{Y}_t = ((1 - \lambda)\sigma^{-1} + \lambda\theta\frac{2 - \lambda}{1 - \lambda})\hat{Q}_t + \hat{C}_t^*$$

- 3 The dynamic IS curve is given by

$$\hat{Y}_t = E_t[\hat{Y}_{t+1}] - (\sigma_\alpha^*)^{-1}(\hat{R}_{H,t} - E_t[\pi_{H,t+1}]) - \sigma_c^* E_t[\Delta \hat{Y}_{t+1}^*]$$

where $(\sigma_\alpha^*)^{-1} = \frac{1 - \lambda}{\sigma} \frac{1 - \lambda + \lambda\theta\sigma(2 - \lambda)/(1 - \lambda)}{1 - \lambda + \lambda\theta\sigma(2 - \lambda)/(1 - \lambda) - \sigma_q}$.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22 / 65

Log-Linear Approximation of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s

- 1 Marginal revenue side

$$\hat{F}_t = (1 - \alpha\beta)(\hat{Y}_t - \sigma\hat{C}_t) + \alpha\beta E_t[\hat{F}_{t+1} + (\epsilon - 1)\pi_{H,t+1}]$$

- 2 Marginal cost side

$$\hat{L}_t = (1 - \alpha\beta)((1 + \varphi)\hat{H}_t - \hat{P}_{H,t}) + \alpha\beta E_t[\hat{L}_{t+1} + \epsilon\pi_{H,t+1}]$$

- 3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

$$L_t = F_t + \hat{P}_{H,t}^*$$

- 4 Definition of price level

$$\pi_{H,t} = ((1 - \alpha)/\alpha)\hat{P}_{H,t}^*$$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23 / 65

Phillips Curve and Output Gap

- 1 Phillips curve

$$\pi_{H,t} = \beta E_t[\pi_{H,t+1}] + \lambda_\alpha(\varphi\hat{Y}_t + \sigma\hat{C}_t - (1 + \varphi)a_t - \hat{P}_{H,t})$$

where $\lambda_\alpha = (1 - \alpha)(1 - \alpha\beta)/\alpha$.

- 2 Potential output equation

$$\varphi\hat{Y}_t + \sigma\hat{C}_t - (1 + \varphi)a_t - \hat{P}_{H,t} = 0$$

- 3 Log-linear relation between consumption, output, and real exchange rate is given by

$$\hat{Y}_t = (1 - \lambda)\hat{C}_t + \lambda\theta\frac{2 - \lambda}{1 - \lambda}\hat{Q}_t + \lambda\hat{C}_t^*$$

- 4 Phillips curve and output gap

$$\pi_{H,t} = \beta E_t[\pi_{H,t+1}] + \lambda_\alpha((\varphi + \frac{1 - \lambda}{\sigma})x_t + \frac{\lambda}{1 - \lambda}(1 - \frac{\sigma\theta(2 - \lambda)}{1 - \lambda})q_t)$$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24 / 65

IS Curve and Output Gap

- ① Dynamic IS curve is given by

$$\hat{Y}_t = E_t[\hat{Y}_{t+1}] - \frac{1-\lambda}{\sigma} (\hat{R}_{H,t} - E_t[\pi_{H,t+1}]) - \sigma_q E_t[\Delta \hat{Q}_{t+1}] - \lambda E_t[\Delta \hat{Y}_{t+1}^*]$$

- ② Dynamic IS curve and output gap

$$x_t = E_t[x_{t+1}] - \frac{1-\lambda}{\sigma} (i_{H,t} - E_t[\pi_{H,t+1}] - r_t^N) - \sigma_q E_t[\Delta q_{t+1}]$$

where r_t^N denotes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r_t^N = -\frac{\sigma}{1-\lambda} E_t[\Delta Y_{t+1}^N] + \frac{\lambda\sigma}{1-\lambda} E_t[\Delta Y_{t+1}^*] + \log \beta.$$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Characterization of U.S. Monetary Policy

- ① The Fed follows a prototypical Taylor rule to set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rule:

$$i_t^* = \min\{i_t + u_t, 0\}$$

- ② i_t represents the systematic part of the U.S.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i_t = \bar{r}_t^* + \pi_t^* + \phi_\pi^* \pi_t^* + \phi_x^* x_t^*$$

where \bar{r}_t^* is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π_t^* is the U.S. inflation rate, and x_t^* is the U.S. output gap. In addition, coefficients ϕ_π^* and ϕ_x^* are positive.

- ③ u_t represents the unexpected shock. This random variable reflects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he timings and the magnitudes of interest adjustments in the normalization process.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Uncertainty in the Quality of News about Future U.S. Interest Rates

- 1 Each period, the U.S. interest rate consists of a systematic part and an unexpected shock. In addition, there is a signal at period t regarding the unexpected shock of the U.S. interest rate at period $t + 1$.
- 2 For example, the signal (denoted by s) takes the form of $s_t = u_{t+1} + \epsilon_t$ where u_{t+1} is the non-systematic part of the U.S. interest rate and ϵ_t is the noisy part of the signal. The distribution of the signal's noise is given by a normal distribution $\mathcal{N}(0, \sigma_\epsilon^2)$ where σ_ϵ is a positive constant.
- 3 Let us assume that, since the quality of the signal is hard to judge, investors treat this signal as ambiguous, following Epstein and Schneider (2008). Specifically, investors believe that the variance of the noise belongs to an interval of $[\underline{\sigma}_\epsilon^2, \bar{\sigma}_\epsilon^2]$ where $0 < \underline{\sigma}_\epsilon < \bar{\sigma}_\epsilon$.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27 / 65

Ambiguous Information and Asymmetric Behavior of Investors

- 1 Investors respond to bad news more than good news when they have ambiguous signals at the current period regarding the next-period's U.S. interest rate.
- 2 A good news arrives when the signal's realized value is greater than the average value of the non-systematic part.
- 3 Investors assign a value to the variance of the noise that minimizes their expected ut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noise's variance belongs to an interval of $[\underline{\sigma}_\epsilon^2, \bar{\sigma}_\epsilon^2]$.
- 4 The current period's actions of investors are also affected by the anticipation of future arrivals of low-quality signals.
- 5 Each period, investors make their decisio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y should choose distributions of future signals in future periods.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28 / 65

Signal Extraction and Multiple Conditional Distributions with Ambiguous Signals

- ① Investors solve a signal extraction problem even when they have ambiguous signals. The difference from the prototypical signal extraction problem is that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u_{t+1} or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u_{t+1} given a value of the signal s_t is not unique.
- ② The prototypical signal extraction problem in the absence of ambiguity is given by $E[u_{t+1}|s_t] = \gamma s_t$ where γ is defined as $\gamma = \sigma_u^2 / (\sigma_u^2 + \sigma_\epsilon^2)$.
- ③ In the presence of ambiguous signals, the regression coefficient is not uniquely determined until a value is assigned to σ_ϵ .
- ④ As a result, multiple posteriors of u_{t+1} after observing $s_t = s$ are given by

$$\mathcal{N}\left(\frac{\sigma_u^2}{\sigma_u^2 + \sigma_\epsilon^2} s, \frac{\sigma_\epsilon^2 \sigma_u^2}{\sigma_u^2 + \sigma_\epsilon^2}\right)$$

where σ_ϵ^2 belongs to an interval of $[\underline{\sigma}_\epsilon^2, \bar{\sigma}_\epsilon^2]$.

Tack Yun (SNU)

GFCM

12/05/2014

29 / 65

Ambiguity Aversion with Ambiguous Signals

- ① The precision of a signal is measured by the inverse of the variance of noise. In the presence of ambiguous signals, the information quality of signals are measured by a range of their precisions $[1/\underline{\sigma}_\epsilon^2, 1/\bar{\sigma}_\epsilon^2]$.
- ② Each period, the effect of ambiguous aversion is reflected in the choice of a value that is assigned to the regression coefficient denoted by γ_t .
- ③ Ambiguity averse investors interpret an ambiguous signal as a bad one if $s_t < 0$ and a good one if $s_t > 0$.
- ④ A bad news leads investors to behave as if they have a precise signal, whereas investors facing a good news choose an imprecise signal.
- ⑤ The regression coefficient is higher with a bad news than with a good news:

$$\gamma_t = \begin{cases} \sigma_u^2 / (\sigma_u^2 + \bar{\sigma}_\epsilon^2) & \text{if } s_t > 0 \\ \sigma_u^2 / (\sigma_u^2 + \underline{\sigma}_\epsilon^2) & \text{if } s_t < 0 \end{cases}$$

Tack Yun (SNU)

GFCM

12/05/2014

30 / 65

Long-Term Interest Rates with Ambiguous Signals

- 1 Let us assume that there are risk-neutral investor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 2 The absence of arbitrage implies that the nominal return for a two-period bond is determined as follows.

$$R_{2t} = R_{1t}E_t[R_{1t+1}]$$

where R_{1t} is the gross interest of one-period nominal bonds and R_{2t} denotes the gross yield to maturity of two-period nominal bonds.

- ③ Each period, u_t is independent of i_t and determined after i_t is set by the Fed. In addition, investors observe both i_t and u_t at period t and also know the true distribution of u_t .
- ④ A signal for u_{t+1} arrives at period t : $s_t = u_{t+1} + \epsilon_t$. Investors process their information in order to determine a value of R_{2t} .

Long-Term Interest Rates with Ambiguity Aversion

- ① The signal at period t (denoted by s_t) does not convey any information about the systematic part of next-period nominal interest rate.
- ② The nominal interest rate for two-period pure discount bonds is determined as follows.

$$\begin{aligned} R_{2t} &= R_{1t} R_1 E[(1 + \hat{R}_{1t+1}) | \Omega_t, s_t] \\ &= R_{1t} R_1 E[(1 + i_{t+1} + u_{t+1}) | \Omega_t, s_t] \end{aligned}$$

where \hat{R}_{1t} is the deviation rate of the one-period nominal interest rate at period t from its steady state value.

- ③ The signal processing of investors at period t leads to the following equation:

$$R_{2t} = R_{1t}R_1(1 + E_t[i_{t+1}] + \gamma_t s_t)$$

- 4 The nominal interest rate for three-period pure discount bonds is given by

$$R_{2t} = R_{1t}R_1^2E_t[(1 + i_{t+1} + \gamma_t s_t)(1 + E_{t+1}[i_{t+2}] + \gamma_{t+1}s_{t+1})]$$

Impact of Future Ambiguous Signals on Current Long-Term Interest Rates

- ① The impact on the long-term interest rate at period t of a future ambiguous signal at period $t + 1$ is summarized by $E_t[\gamma_{t+1}s_{t+1}]$.
- ② This term can be negative or positive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investors regarding the ambiguous signals.
- ③ For example, if $s_{t+1} > 0$ is interpreted as a good one, the following relation holds.

$$\begin{aligned} E_t[\gamma_{t+1}s_{t+1}] &= E_t[\gamma_{t+1}E[s_{t+1}|\gamma_{t+1}]] \\ &= 0.5\bar{\gamma}(-\sigma_s\sqrt{2/\pi}) + 0.5\underline{\gamma}(\sigma_s\sqrt{2/\pi}) \\ &= -(\bar{\gamma} - \underline{\gamma})\sigma_s/(\sqrt{2\pi}) \end{aligned}$$

- ④ If $s_{t+1} < 0$ is interpreted as a good one, the following relation holds.

$$\begin{aligned} E_t[\gamma_{t+1}s_{t+1}] &= E_t[\gamma_{t+1}E[s_{t+1}|\gamma_{t+1}]] \\ &= 0.5\underline{\gamma}(-\sigma_s\sqrt{2/\pi}) + 0.5\bar{\gamma}(\sigma_s\sqrt{2/\pi}) \\ &= (\bar{\gamma} - \underline{\gamma})\sigma_s/(\sqrt{2\pi}) \end{aligned}$$

Tack Yun (SNU)

GFCM

12/05/2014

33 / 65

Log-Linear Approximation of Long-Term Interest Rates

- ① The impact on the long-term interest rate at period t of future ambiguous signals depends on the number of time periods when signals will be ambiguous.
- ②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termination of long-term interest rates is the belief of investors regarding the number of time periods that future signals of low-quality information will arrive.
- ③ For example, if $s_{t+k} > 0$ (for $k = 0, 1, \dots$) is interpreted as a bad news, the following relation for long-term interest rates holds:

$$\hat{R}_{mt} = \hat{R}_{1t} + \sum_{k=1}^{m-1} E_t[i_{t+k}] + \gamma_t s_t + (m-2)v_0$$

for $m = 2, 3, \dots$, and where v_0 is defined as $v_0 = (\bar{\gamma} - \underline{\gamma})\sigma_s/(\sqrt{2\pi})$.

Tack Yun (SNU)

GFCM

12/05/2014

34 / 65

Potential Impact of Uncertainty in Future U.S. Monetary Policy Behaviors

- ① Let us assume that there is a signal for the future target of the U.S.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nd its information quality as a signal for future U.S. monetary policy behaviors is difficult to judge.
- ② Investors might want to prefer the worst-case belief regarding future (short-term) U.S. interest target levels if they are all ambiguity averse in the sense of Epstein and Schneider (2008).
- ③ It can be shown that when investors are coordinated to have the same worst-case belief and believe that a series of bad news arrives persistently with ambiguous signals, long-term interest r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can respond sensitively to the current news about future U.S. monetary policy behaviors.
- ④ These changes in long-term interest rates are transmitted into nominal exchange rates based on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s for long-term interest rates.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35 / 65

Log-Linearized Equations for Small Open Economies: Complete Market

- ① Dynamic IS curve

$$x_t = E_t[x_{t+1}] - (\sigma_\alpha^*)^{-1}(i_{H,t} - E_t[\pi_{H,t+1}] - r_t^N)$$

where x_t is the output gap at period t , $i_{H,t}$ is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pi_{H,t}$ is the inflation rate of GDP deflator, and r_t^N is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 ② Phillips curve equation

$$\pi_{H,t} = \beta E_t[\pi_{H,t+1}] + \kappa_\alpha^* x_t$$

where κ_α^* is the slope of the Phillips curve in the presence of complete market for contingent claims and β is the time discount factor.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36 / 65

Openness and Slopes of IS and AS Curves

- 1 The degree of openness is measured by the inverse of the home bias in preferences (consumption basket).
- 2 An increase in openness raises the interest-rate sensitivity of the aggregate demand when $\omega > 1$.
 - The sensitivity of the aggregate demand with respect to net exports increases with openness.
 - The net exports are affected by the terms of trade.
 - The terms-of-trade is affected by current and anticipated future interest differentials.
- 3 An increase in openness lowers the slope of the Phillips curve.
 - An increase in the aggregate output leads to a smaller increase in the real marginal cost in open economies than in closed economies.
 - The slope of the Phillips curve is lower in open economies than in closed economies when $\omega > 1$, where $\omega = \sigma\gamma + (1 - \lambda)(\sigma\theta - 1)$.

◀ ◻ ▶ ◀ ◻ ▶ ◀ ≡ ▶ ◀ ≡ ▶ ≡ 🔍 ↺

Tack Yun (SNU)

GFCM

12/05/2014

37 / 65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Exchange Rate

- ① The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 is given by

$$e_t = E_t[e_{t+1}] - (i_{H,t} - i_t)$$

where e_t is logarithm of the nominal exchange rate, $i_{H,t}$ is the domestic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nd i_t is the U.S.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 ② A difference equation for the terms-of-trade is given by

$$q_{H,t} = E_t[q_{H,t+1}] - (i_{H,t} - E_t[\pi_{H,t+1}]) + (i_t - E_t[\pi_{t+1}^*])$$

where $q_{H,t}$ ($= p_t^* + e_t - p_{H,t} = q_t/(1 - \lambda)$) denotes the logarithm of the terms-of-trade.

- ③ The terms-of-trade is a function of current and anticipated real interest rate differentials.

$$q_{H,t} = \sum_{k=0}^{\infty} E_t[-(i_{H,t+k} - \pi_{H,t+k+1}) + (i_{t+k} - \pi_{t+k+1}^*)].$$

Tack Yun (SNU)

GFCM

12/05/2014

38 / 65

Derivation of the IS Curve in Small Open Economies

- 1 The output gap is a function of current and anticipated real interest rates.

$$x_t = -(\sigma_\alpha^*)^{-1} \sum_{k=0}^{\infty} E_t[i_{H,t+k} - \pi_{H,t+k+1} - r_{t+k}^N].$$

- 2 The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 implies that the dynamic IS curve for small open economies can be written as

$$q_{H,t} = \sigma_\alpha^* x_t + \sum_{k=0}^{\infty} E_t[i_{t+k} - \pi_{t+k+1}^* - r_{t+k}^N].$$

- 3 The real exchange rate is a function of the output gap, long-run U.S. real interest rate and long-run home natural rate of interest.

$$q_{H,t} = \sigma_\alpha^* x_t + r_{l,t}^* - r_{l,t}^N$$

where $r_{l,t}^* (= \sum_{k=0}^{\infty} E_t[i_{t+k} - \pi_{t+k+1}^*])$ is the long-run U.S. real interest rate and $r_{l,t}^N (= \sum_{k=0}^{\infty} E_t[r_{t+k}^N])$ is the long-run natural interest rate.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Impacts of Ambiguous Signals on the IS Curve

- 1 At the beginning of period t , there is only one type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size of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t period $t + m$. Until period $t + m - 1$, investors continue to have ambiguous signals regarding the size of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t period $t + m$.

- 2 In the presence of ambiguous signals, the IS curve can be written as follows.

$$q_{H,t} = \sigma_\alpha^* x_t + r_{l,t}^* - \bar{r}_{l,t} + \gamma_t s_t + (m - 2)v_0.$$

- 3 In this representation, $r_{l,t}^*$ is the part of the U.S. long-run real interest rate that involves only the endogenous component of the U.S. monetary policy instrument. The uncertainty regarding future U.S. monetary policy behaviors leads to upward shifts of the IS curve in a small-open economy model.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Expectation Channel of Future Ambiguous Signals

- ① When investors anticipate that they will continue to have ambiguous signals in future periods, there is an expectation channel of future ambiguous signals that affect nominal and real exchange rates. This expectation channel is independent of the realized value of the signal in the current period.
- ② When the presence of future ambiguous signals is combined with ambiguity aversion, it raises expected values of future U.S. short-term interest rates more than those without ambiguity aversion.
- ③ To the extent which financial investors at emerging-market economies interpret the signals of future rises in the U.S. short-term interest rates at bad ones, this expectation channel works.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41 / 65

Derivation of the CB Curve

- ① The CB curve summarizes the relation between the real exchange rate and the output gap that is implied by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behavior.
- ② Let us assume that the central bank in the home country adopts the following interest rate rule

$$i_{H,t} = r_t^* + E_t[\pi_{H,t+1}] + \phi_\pi E_t[\pi_{H,t+1}] + \phi_x (E_t[x_{t+1}] - x_t)$$

- ③ The substitution of this equation into the uncovered parity condition leads to the following relation

$$q_{H,t} = \phi_\pi p_{H,t} + \phi_x x_t + \sum_{k=0}^{\infty} E_t[i_{t+k} - \pi_{t+k+1}^* - \bar{r}_{t+k}]$$

- ④ The CB curve can be rewritten as

$$q_{H,t} = \phi_\pi p_{H,t} + \phi_x x_t + r_{l,t}^* - \bar{r}_{l,t}$$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42 / 65

Determination of Equilibrium Output and Inflation: Complete Markets

- 1 The CB and IS curves are solved to obtain a relation between the output gap and GDP deflator:

$$p_{H,t} = \phi_{\pi}^{-1}(\sigma_{\alpha}^* - \phi_x)x_t$$

- 2 By substituting this relation into the Phillips curve equation, we can have a difference equation for the output gap

$$E_t[x_{t+1}] = (1 + \beta^{-1} - (\beta\tau)^{-1}\kappa_{\alpha}^*)x_t - \beta^{-1}x_{t-1}$$

where τ is defined as $\tau = \phi_{\pi}^{-1}(\sigma_{\alpha}^* - \phi_x)$.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43 / 65

Log-Linearized Equations for Small Open Economies: Incomplete Markets

- 1 Dynamic IS curve

$$x_t = E_t[x_{t+1}] - \sigma_{\alpha}^{-1}(i_{H,t} - E_t[\pi_{H,t+1}] - r_t^N) - \sigma_q E_t[\Delta q_{t+1}]$$

where x_t is the output gap at period t , $i_{H,t}$ is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pi_{H,t}$ is the inflation rate of GDP deflator, and \bar{r}_t is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 2 Phillips curve equation

$$\pi_{H,t} = \beta E_t[\pi_{H,t+1}] + \kappa_{\alpha} x_t + \kappa_s q_{H,t}$$

where κ_{α} is the slope of the Phillips curve and β is the time discount factor.

- 3 In the case of incomplete markets, the terms-of-trade is included in the Phillips curve equation.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44 / 65

Determination of Equilibrium Output and Inflation: Incomplete Markets

- 1 The CB and IS curves are solved to obtain a relation between the output gap and GDP deflator:

$$p_{H,t} = \phi_{\pi}^{-1}(\sigma_{\alpha} - \phi_x)x_t$$

- 2 The substitution of this relation into the Phillips curve equation leads to the following equation:

$$E_t[x_{t+1}] = (1 + \beta^{-1} - (\beta\tau)^{-1}\kappa_{\alpha})x_t - \beta^{-1}x_{t-1} - (\beta\tau)^{-1}\kappa_s q_{H,t}$$

where κ_s is defined as $\kappa_s = \lambda(1 - \omega)$.

- 3 By substituting the IS curve equation into this equation, we can have a difference equation for the output gap

$$E_t[x_{t+1}] = \tau_x x_t - \beta^{-1}x_{t-1} - (\beta\tau)^{-1}\kappa_s(r_{l,t}^* - \bar{r}_{l,t})$$

where τ_x is defined as $\tau_x = 1 + \beta^{-1} - (\beta\tau)^{-1}(\kappa_{\alpha} + \kappa_s\sigma_{\alpha})$.

Tack Yun (SNU)

GFCM

12/05/2014

45 / 65

Determination of Equilibrium Output and Inflation: Incomplete Markets and Ambiguous Policy Signals

- 1 In the presence of ambiguous policy signals, the equilibrium output gap i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difference equation:

$$E_t[x_{t+1}] = \tau_x x_t - \beta^{-1}x_{t-1} - (\beta\tau)^{-1}\kappa_s(r_{l,t}^* - \bar{r}_{l,t} + \gamma_t s_t + (m-2)v_0)$$

- 2 The final two terms in the right-hand side of this equation reflects the impact of ambiguous policy signals on the equilibrium output gap.
- 3 In the absence of ambiguous policy signals, the equilibrium output gap i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difference equation:

$$E_t[x_{t+1}] = \tau_x x_t - \beta^{-1}x_{t-1} - (\beta\tau)^{-1}\kappa_s(r_{l,t}^* - \bar{r}_{l,t})$$

where τ_x is defined as $\tau_x = 1 + \beta^{-1} - (\beta\tau)^{-1}(\kappa_{\alpha} + \kappa_s\sigma_{\alpha})$.

Tack Yun (SNU)

GFCM

12/05/2014

46 / 65

Calibration

Parameter	Value	Description
α	0.75	Degree of nominal price rigidity
β	0.99	Time discount factor
σ	0.16	Inverse of intertemporal elasticity of consumption
φ	1	Inverse of elasticity of labor supply
λ	0.25	Degree of openness
θ	1.5	Substitution between home and foreign goods
ϕ_x	0.5	Coefficient of output gap growth in the Taylor rule
ϕ_p	1.5	Coefficient of inflation in the Taylor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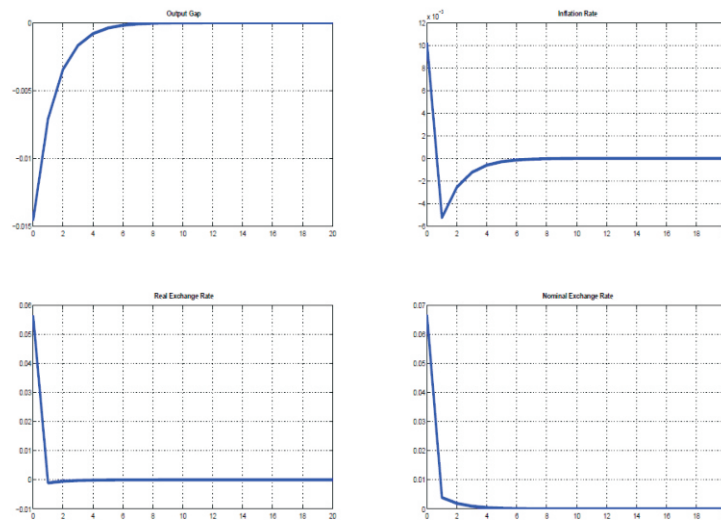
Tack Yun (SNU)

GFCM

12/05/2014

47 / 65

Dynamic Effects of Ambiguous Policy Signals



Tack Yun (SNU)

GFCM

12/05/2014

48 / 65

Optimal Monetary Policy Problem: Incomplete Market

$$\begin{aligned} \max_{\{C_t, H_t, P_{h,t}, Q_t, F_t, L_t, \Delta_t, \Pi_{H,t}\}_{t=0}^{\infty}} E_0 \sum_{t=0}^{\infty} \beta^t u(C_t, H_t) \quad \text{subject to} \\ \frac{A_t H_t}{\Delta_t} = P_{h,t}^{-\theta} ((1-\lambda)C_t + \lambda Q_t^\theta C_t^*) \\ F_t = \frac{A_t H_t}{\Delta_t C_t^\sigma} + \alpha \beta E_t[\Pi_{H,t+1}^{\epsilon-1} F_{t+1}] \\ L_t = \frac{\nu \epsilon}{\epsilon-1} \frac{H_t^{1+\chi}}{\Delta_t P_{h,t}} + \alpha \beta E_t[\Pi_{H,t+1}^\epsilon L_{t+1}] \\ \Delta_t = (1-\alpha)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epsilon}{\epsilon-1}} + \alpha \Pi_{H,t}^\epsilon \Delta_{t-1} \\ L_t =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1}{1-\epsilon}} F_t, \quad 1 = \lambda Q_t^{1-\theta} + (1-\lambda) P_{h,t}^{1-\theta} \\ C_t^{-\sigma} Q_t = \beta (1+i_t^*) E_t[C_{t+1}^{-\sigma} Q_{t+1} / \Pi_{t+1}^*] \end{aligned}$$

Tack Yun (SNU)

GFCM

12/05/2014

49 / 65

Optimal Conditions

$$\begin{aligned} \phi_{2t} - \frac{\phi_{5t}}{K_t} &= \alpha \Pi_{H,t}^{\epsilon-1} \phi_{2t-1}, \quad \phi_{3t} + \phi_{5t} = \alpha \Pi_{H,t}^\epsilon \phi_{3t-1}, \quad K_t =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1}{\epsilon-1}} \\ \phi_{4t} (\Delta_{t-1} \Pi_{H,t} - K_t) &= \frac{\phi_{5t} F_t}{(1-\alpha)\epsilon} K_t^{-\epsilon} + (1-\epsilon^{-1}) \phi_{2t-1} F_t + \phi_{3t-1} \Pi_{H,t} L_t \\ C_t^{-\sigma} - \phi_{1t} P_{ht}^{-\theta} (1-\lambda) + \sigma \frac{\phi_{2t} Y_t}{C_t^{\sigma+1}} + \sigma \frac{Q_t M_t}{\lambda C_t^{\sigma+1}} &= 0 \\ -\nu H_t^\chi + \frac{A_t}{\Delta_t} \phi_{1t} - \phi_{2t} \frac{A_t}{\Delta_t C_t^\sigma} - \phi_{3t} \frac{\nu \epsilon (1+\chi) H_t^\chi}{(\epsilon-1) \Delta_t P_{ht}} &= 0 \\ \theta \phi_{1t} (Y_t + (1-\lambda) \left(\frac{Q_t}{P_{ht}} \right)^{2\theta-1} C_t^*) + \left(\frac{Q_t}{P_{ht}} \right)^\theta \frac{(1-\lambda) P_{ht} M_t}{\lambda C_t^\sigma} + \frac{\nu \epsilon \phi_{3t} H_t^{1+\chi}}{(\epsilon-1) \Delta_t P_{ht}} &= 0 \\ \phi_{4t} &= \alpha \beta E_t[\Pi_{H,t+1}^\epsilon \phi_{4t+1}] - \frac{\phi_{1t} A_t H_t}{\Delta_t^2} + \phi_{2t} \frac{A_t H_t}{C_t^\sigma \Delta_t^2} + \phi_{3t} \frac{\nu \epsilon H_t^{1+\chi}}{(\epsilon-1) P_{h,t} \Delta_t^2} \end{aligned}$$

Tack Yun (SNU)

GFCM

12/05/2014

50 / 65

Simplified Optimal Conditions I

$$\phi_{2t} - \frac{\phi_{5t}}{K_t} = \alpha \Pi_{H,t}^{\epsilon-1} \phi_{2t-1}, \quad \phi_{3t} + \phi_{5t} = \alpha \Pi_{H,t}^{\epsilon} \phi_{3t-1}, \quad K_t = \left(\frac{1 - \alpha \Pi_{H,t}^{\epsilon-1}}{1 - \alpha} \right)^{\frac{1}{\epsilon-1}}$$

$$\phi_{4t} (\Delta_{t-1} \Pi_{H,t} - K_t) = \frac{\phi_{5t} F_t}{(1 - \alpha) \epsilon} K_t^{-\epsilon} + (1 - \epsilon^{-1}) \phi_{2t-1} F_t + \phi_{3t-1} \Pi_{H,t} L_t$$

$$\phi_{1t} C_t^{\sigma} = \frac{P_{ht}^{\theta}}{1 - \lambda} \left(1 + \sigma \phi_{2t} \frac{Y_t}{C_t} + \sigma \frac{Q_t M_t}{\lambda C_t} \right)$$

$$\nu C_t^{\sigma} H_t^{\chi+1} = -\phi_{2t} Y_t + \phi_{1t} C_t^{\sigma} V_t + \left(\frac{Q_t}{P_{ht}} \right)^{\theta} \frac{(1 - \lambda)(1 + \chi) P_{ht} M_t}{\lambda}$$

$$\phi_{4t} = \alpha \beta E_t [\Pi_{H,t+1}^{\epsilon} \phi_{4t+1}] - \frac{\phi_{1t} A_t H_t}{\Delta_t^2} + \phi_{2t} \frac{A_t H_t}{C_t^{\sigma} \Delta_t^2} + \phi_{3t} \frac{\nu \epsilon H_t^{1+\chi}}{(\epsilon - 1) P_{h,t} \Delta_t^2}$$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51 / 65

Simplified Optimal Conditions II

$$\phi_{2t} - \frac{\phi_{5t}}{K_t} = \alpha \Pi_{H,t}^{\epsilon-1} \phi_{2t-1}, \quad \phi_{3t} + \phi_{5t} = \alpha \Pi_{H,t}^{\epsilon} \phi_{3t-1}, \quad K_t = \left(\frac{1 - \alpha \Pi_{H,t}^{\epsilon-1}}{1 - \alpha} \right)^{\frac{1}{\epsilon-1}}$$

$$\phi_{4t} (\Delta_{t-1} \Pi_{H,t} - K_t) = \frac{\phi_{5t} F_t}{(1 - \alpha) \epsilon} K_t^{-\epsilon} + (1 - \epsilon^{-1}) \phi_{2t-1} F_t + \phi_{3t-1} \Pi_{H,t} L_t$$

$$\nu C_t^{\sigma} H_t^{\chi+1} = \phi_{2t} Y_t \left(\sigma \frac{P_{h,t}^{\theta} V_t}{(1 - \lambda) C_t} - 1 \right) + \tau \left(\frac{Q_t}{P_{ht}} \right)^{\theta} P_{ht} M_t + \frac{P_{ht}^{\theta} V_t}{1 - \lambda} \left(1 + \sigma \frac{Q_t M_t}{\lambda C_t} \right)$$

$$M_t = \phi_{7t-1} \frac{1 + i_{t-1}^*}{\Pi_t^*} - \phi_{7t}, \quad \tau = (1 - \lambda)(1 + \chi)/\lambda$$

$$V_t = Y_t (1 + \theta(1 + \chi)) + (1 - \lambda) \theta(1 + \chi) \left(\frac{Q_t}{P_{h,t}} \right)^{2\theta-1} C_t^*$$

$$\phi_{4t} = \alpha \beta E_t [\Pi_{H,t+1}^{\epsilon} \phi_{4t+1}] - \frac{\phi_{1t} Y_t}{\Delta_t} + \phi_{2t} \frac{Y_t}{C_t^{\sigma} \Delta_t} + \phi_{3t} \frac{\nu \epsilon H_t^{1+\chi}}{(\epsilon - 1) P_{h,t} \Delta_t^2}$$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52 / 65

Log-Linear Approximation

- 1 Log-linear approximation leads to the following equation:

$$\epsilon(1 + \frac{\phi_4}{\phi_2 F})\pi_{H,t} = \hat{\phi}_{2t} - \hat{\phi}_{2t-1}$$

$$\hat{\phi}_{2t} = \gamma_x \hat{Y}_t + \gamma_c \hat{C}_t + \gamma_q \hat{Q}_t + \gamma_a a_t + \gamma_c^* \hat{C}_t^* + \gamma_m \hat{M}_t$$

- 2 $\pi_{H,t} = 0$ leads to $\hat{\phi}_{2t} = 0$ for all t , which in turn implies

$$\gamma_x \hat{Y}_t^N + \gamma_c \hat{C}_t^N + \gamma_q \hat{Q}_t^N + \gamma_a a_t + \gamma_c^* \hat{C}_t^* + \gamma_m \hat{M}_t^N = 0$$

- 3 Potential output equation

$$\varphi \hat{Y}_t^N + \sigma \hat{C}_t^N - (1 + \varphi)a_t - \hat{P}_{h,t}^N = 0$$

- 4 As a result, we have a targeting rule for small open economies with incomplete markets

$$\pi_{H,t} = \tau_x(x_t - x_{t-1}) + \tau_q(q_t - q_{t-1}) + \tau_m(m_t - m_{t-1}).$$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Implication of Optimal Targeting Rule

- 1 The optimal monetary policy requires the central bank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U.S. short-term interest rates when financial markets are incomplete.
- 2 To the extent which the central bank respects this optimal prescription, the future signals of U.S. short-term interest rates affect the central bank's future behavior.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Social Planner's Problem and Ramsey Problem

1 Social Planner's Problem

$$\max E_0 \sum_{t=0}^{\infty} \beta^t u(X_{t-1}, U_t) \quad \text{s.t.} \quad X_t = f(X_{t-1}, U_t, e_t)$$

2 Ramsey Problem

$$\max E_0 \sum_{t=0}^{\infty} \beta^t v(X_{t-1}, Z_{t-1}, U_t) \quad \text{s.t.} \quad \begin{aligned} X_t &= f(X_{t-1}, U_t, e_t) \\ Z_t &= g(Z_{t-1}, X_{t-1}, W_t) \end{aligned}$$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59 / 65

Linear-Quadratic Approximation to the Lagrangian of a Dynamic Stochastic Optimization Problem

1 Social Planner's Problem

$$\max E_0 \sum_{t=0}^{\infty} \beta^t u(X_{t-1}, U_t) \quad \text{s.t.} \quad X_t = f(X_{t-1}, U_t, e_t)$$

2 Define the Hamiltonian as follows:

$$H(X_{t-1}, U_t, e_t) = u(X_{t-1}, U_t) + \lambda^T f(X_{t-1}, U_t, e_t)$$

3 Linear-Quadratic Approximation

$$\max E_0 \sum_{t=0}^{\infty} \beta^t \begin{pmatrix} x_{t-1}^T & u_t^T & e_t^T \end{pmatrix} \begin{pmatrix} H_{xx} & H_{xu} & H_{xe} \\ H_{ux} & H_{uu} & H_{ue} \\ H_{ex} & H_{eu} & H_{ee} \end{pmatrix} \begin{pmatrix} x_{t-1} \\ u_t \\ e_t \end{pmatrix}$$

$$x_t = f_x x_{t-1} + f_u u_t + f_e e_t$$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Tack Yun (SNU)

GFCM

12/05/2014

60 / 65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a Local Maximum

1 Social Planner's Problem

$$\max E_0 \sum_{t=0}^{\infty} \beta^t u(X_{t-1}, U_t) \quad \text{s.t.} \quad X_t = f(X_{t-1}, U_t, e_t)$$

2 Lagrangian

$$L = E_0 \sum_{t=0}^{\infty} \beta^t (u(X_{t-1}, U_t) - \lambda^T (X_t - f(X_{t-1}, U_t, e_t)))$$

3 First-Order Necessary Conditions

$$u_u(t) + \lambda_t^T f_u(t) = 0, \quad u_x(t) - \beta^{-1} \lambda_{t-1}^T + \lambda_t^T f_x(t) = 0$$

4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a Local Maximum:

$(\beta f_u^T p_t f_u + H_{uu})$ is negative definite for all periods where p_t satisfies

$$p_{t+1} = \beta f_x' p_t f_x - (\beta f_x' p_t f_u + H_{xu}) (\beta f_u' p_t f_u + H_{uu})^{-1} (\beta f_u' p_t f_x + H_{ux}) + H_{xx}.$$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Lagrangian of Optimal Monetary Policy Problem

$$\begin{aligned} \mathcal{L} = & \sum_{t=0}^{\infty} \beta^t E_0 \left[u((1-\lambda)^{-1} (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 \frac{\Delta_t Y_t}{A_t}) \right. \\ & - \phi_{2t} \left(\frac{(1-\lambda)^\sigma Y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 \alpha \beta \Pi_{H,t+1}^{\epsilon-1} F_{t+1} - F_t \right) \\ & - \phi_{3t} \left(\frac{\nu \epsilon}{(\epsilon-1)} \frac{Y_t^{1+\chi} \Delta_t^\chi}{A_t^{1+\chi} P_{h,t}} + \alpha \beta \Pi_{H,t+1}^\epsilon L_{t+1} - L_t \right) \\ & + \phi_{4t} \left((1-\alpha)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epsilon}{\epsilon-1}} + \alpha \Pi_{H,t}^\epsilon \Delta_{t-1} - \Delta_t \right) \\ & - \phi_{5t} \left(F_t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1}{1-\epsilon}} - L_t \right) \\ & + \phi_{6t} \left(1 - \lambda Q_t^{1-\theta} - (1-\lambda) P_{h,t}^{1-\theta} \right) \\ & \left. + \phi_{7t} \left(\frac{Q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 \beta \frac{R_{t+1}^* Q_{t+1}}{(P_{h,t+1}^\theta Y_{t+1} - \lambda Q_{t+1}^\theta C_{t+1}^*)^\sigma} \right) \right] \end{aligned}$$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

Hamiltonian of Optimal Monetary Policy Problem

$$\begin{aligned}
 \mathcal{H}_t = & u((1-\lambda)^{-1}(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 \frac{\Delta_t Y_t}{A_t}) \\
 & - \phi_2 \left(\frac{(1-\lambda)^\sigma Y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 \alpha \Pi_{H,t}^{\epsilon-1} F_t \right) \\
 & - \phi_3 \left(\frac{\nu \epsilon}{(\epsilon-1)} \frac{Y_t^{1+\chi} \Delta_t^\chi}{A_t^{1+\chi} P_{h,t}} + \alpha \Pi_{H,t}^\epsilon L_t \right) \\
 & + \phi_4 \left((1-\alpha)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epsilon}{\epsilon-1}} + \alpha \Pi_{H,t}^\epsilon \Delta_{t-1} \right) \\
 & - \phi_5 \left(F_t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1}{1-\epsilon}} \right) \\
 & - \phi_6 \left(\lambda Q_t^{1-\theta} + (1-\lambda) P_{h,t}^{1-\theta} \right) \\
 & + \phi_7 \left(\frac{Q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 \frac{R_t^* Q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right)
 \end{aligned}$$

Tack Yun (SNU)

GFCM

12/05/2014

63 / 65

Lagrangian of Optimal Monetary Policy Problem under Capital Control

$$\begin{aligned}
 \mathcal{L} = & \sum_{t=0}^{\infty} \beta^t E_0 \left[u((1-\lambda)^{-1}(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 \frac{\Delta_t Y_t}{A_t}) \right. \\
 & - \phi_{2t} \left(\frac{(1-\lambda)^\sigma Y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 \alpha \beta \Pi_{H,t+1}^{\epsilon-1} F_{t+1} - F_t \right) \\
 & - \phi_{3t} \left(\frac{\nu \epsilon}{(\epsilon-1)} \frac{Y_t^{1+\chi} \Delta_t^\chi}{A_t^{1+\chi} P_{h,t}} + \alpha \beta \Pi_{H,t+1}^\epsilon L_{t+1} - L_t \right) \\
 & + \phi_{4t} \left((1-\alpha)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epsilon}{\epsilon-1}} + \alpha \Pi_{H,t}^\epsilon \Delta_{t-1} - \Delta_t \right) \\
 & - \phi_{5t} \left(F_t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1}{1-\epsilon}} - L_t \right) \\
 & \left. + \phi_{6t} \left(1 - \lambda Q_t^{1-\theta} - (1-\lambda) P_{h,t}^{1-\theta} \right) \right]
 \end{aligned}$$

Tack Yun (SNU)

GFCM

12/05/2014

64 / 65

Hamiltonian of Optimal Monetary Policy Problem under Capital Control

$$\begin{aligned}
 \mathcal{H}_t = & u((1-\lambda)^{-1}(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 \frac{\Delta_t Y_t}{A_t}) \\
 & - \phi_2 \left(\frac{(1-\lambda)^\sigma Y_t}{(P_{h,t}^\theta Y_t - \lambda Q_t^\theta C_t^*)^\sigma} + \alpha \Pi_{H,t}^{\epsilon-1} F_t \right) \\
 & - \phi_3 \left(\frac{\nu \epsilon}{(\epsilon-1)} \frac{Y_t^{1+\chi} \Delta_t^\chi}{A_t^{1+\chi} P_{h,t}} + \alpha \Pi_{H,t}^\epsilon L_t \right) \\
 & + \phi_4 \left((1-\alpha)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epsilon}{\epsilon-1}} + \alpha \Pi_{H,t}^\epsilon \Delta_{t-1} \right) \\
 & - \phi_5 \left(F_t \left(\frac{1-\alpha \Pi_{H,t}^{\epsilon-1}}{1-\alpha} \right)^{\frac{1}{1-\epsilon}} \right) \\
 & - \phi_6 \left(\lambda Q_t^{1-\theta} + (1-\lambda) P_{h,t}^{1-\theta} \right)
 \end{aligned}$$

Navigation icons: back, forward, search, etc.